

제주학정책연구 세미나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지역학아카이브의 역할과 제주학아카이브의 미래-

- 일 시 : 2018년 10월 2일(화) 14:00~18:00
- 장 소 :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2층)
- 주 최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지역학아카이브의 역할과 제주학아카이브의 미래—

□ 목적과 필요성

- 제주학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학아카이브의 확대 발전 방안을 모색함
- 제주학아카이브의 효율적 활용으로 제주학 지식자원 보존과 유산의 글로벌화 가능성 확인

□ 개요

- 제 목 :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 지역학아카이브의 역할과 제주학아카이브의 미래 —
- 주 최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일 시 : 2018년 10월 2일(화) 14:00~18:00
- 장 소 :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2층)
- 참석자 : 관계자와 도민 등 50명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개회식	14:00~14:10	사 회 :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개회사 :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1부	발 제	· 로컬리티 기록화와 제주학아카이브의 역할 - 전혜영 (주)아카이브랩 대표)
	14:10~14:40	
14:40~14:50		휴 식
2부	발 표	사 회 :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14:50~15:20	·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발전방안 -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5:20~15:50	· 이용자 친화적 지역인문자원 통합관리모델 연구 : 제주학아카이브를 중심으로 - 최효진 (새공공 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연구위원)
	15:50~16:20	·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술자료관으로서의 가능성과 과제 - 염미경 (제주대 교수)
	16:20~16:50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 : SW/HW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 강진욱 (주)제머나이소프트 이사)
16:50~17:00		휴 식
3부	토 론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17:00~18:00	· 민성혜 (RM Soft 아카이브 소장) · 김정규 (제주시청 기록관리사) · 안현준 (도시재생센터 팀장) ·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과장)
폐 회	18:00~	폐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한라산 자락에 억새꽃 물결이 출렁거리고 노란 들국화 향기가 그윽한 가을의 한복판에 머무른 듯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머니의 땅,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학 자원의 글로벌화로 문화자원을 재생산하고 자료의 지속 보전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제주학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알리고 효율적 활용을 통한 확대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의 원천기반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8월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4년 4월 온라인시스템(www.jst.re.kr)을 개설하여 교육과 연구용 자료를 대외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 자료는 46,500여 건으로, 규장각 소장 제주관련 고문서 60건, 고지도 11건 등 디지털 자료를 비롯하여, 제주학 연구물인 단행본이나 논문 등 9,900건, 제주를 대표하는 전문작가의 사진 9,000건, 제주민요 700건, 무속자료와 해녀 관련 자료 2,000건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학 아카이브의 미래를 진단하고, 지역자료관(가칭 ‘탐라자료관’)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이용자 친화적인 지역인문 자원의 통합관리 모델로서 지역학 아카이브의 발전 가능성이 논의될 것입니다.

소중한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전해영 아카이브랩 대표님을 비롯하여, 최효진 새공공 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연구위원님, 염미경 제주대 교수님, 강진욱 (주)제머나이 소프트 이사님과, 토론자이신 민성혜 RM소프트 아카이브 소장님, 김정규 제주시청 기록관리사님, 안현준 도시재생센터 팀장님,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주학아카이브가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제주학 지식 자원 보존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제주연구원장 박 찬 식

목 차

〈발제〉

○ 로컬리티 기록화와 제주학아카이브의 역할

- 발표 : 전해영 (주)아카이브랩 대표)..... 9

〈제2부-발표〉

○ 제주학아카이브의 자료구축 현황과 과제

- 발표 :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5

○ 이용자 친화적 지역인문자원 통합관리모델 연구 : 제주학아카이브를 중심으로

- 발표 : 최효진 (새공공 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연구위원) 39

○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술자료관으로서의 가능성과 과제

- 발표 :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수) 75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

- SW/HW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 발표 : 강진욱 (주)제머나이소프트 이사) 91

〈제3부〉

○ 토론

〈발제〉

로컬리티 기록화와 제주학아카이브의 역할

전 혜 영

(주)아카이브랩 대표

로컬리티 기록화와 제주학아카이브의 역할

전혜영 (아카이브랩 연구원)

1. 왜 ‘로컬리티 기록화’인가

1.1. 아카이브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단계	1기	2기	3기	4기
주요시기	1850년대~1930년대	1930년대~1970년대	1970년대~2010년대	2010년대~
핵심 키워드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
아카이브의 본질	법적 유산	문화적 기억	사회적 기억	공유기억
	법적 증거	학술엘리트들 주요기 반으로 하는 문화유 산자원	정체성의 표상	아카이빙의 산물로써 의 참여와 협력
아키비스트 의 역할	-보관자, 증거의 수 호자 -(수동적 큐레이터)	-역사가, 아키비스트 -(능동적 평가자)	-중개자, 이키비스트 -(사회적 중재자)	-활동가, 아키비스트 멘토 -(공동체 활동가)

<표 1> 아카이브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 설문원, 2015,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에서 발췌)

-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해 온 아카이브 패러다임의 변화를 캐나다 기록학자인 Terry Cook이 정리한 것임
- 우리나라 기록관리 환경과 역량에 비춰볼 때, 위에서 제시된 시기별 패러다임이 동시적이고 중첩적인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다만, 영역별 주체별로 집중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이는 기록화의 범주와 방법론에 영향을 미침

■ 제주학아카이브 관점에서의 시사점

■ 지역 정체성에 주목

- 지역학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 또한 “제주의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지역연대 및 시민지향의 제주학”임을 상기하면 제주학아카이브는 우선적으로 지역 정체성에 주목해야 함
-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제도적 특성뿐 아니라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동적인 개념이어야 하며, 이를 말해줄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함

■ 공동체 개념의 적극 수용

-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 및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주민, 마을공동체, 이익공동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학아카이브는 주민과 공동체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참여의 방식은 기록생산, 기록수집,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할 수 있음)
- 시민의 삶과 공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 지역공동체 및 소수자 집단의 활동, 지역의 역사성이 담긴 다양한 매체의 기록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기억과 증거의 조화

- 증거로서의 기록(공공기록)과 기억으로서의 기록(시민기록)이 조화롭게 수집·관리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는 늘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제도 등을 둘러싸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기록과 주민의 체험과 기억에 담긴 기록은 다를 수 있음

1.2. 로컬리티 기록화의 의미

■ 로컬리티(locality) : 기록화 대상

- 로컬리티는 지역의 다원적이며 변화하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활동 주체들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함¹⁾

1) 로컬리티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로컬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변화”하는 개념 (박규택, 2009,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사회·역사 구성주의 관점, 『한국민족문화』 33)

- 공간이나 장소의 물리적 변화 이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각종 정책과 사건, 장소를 경험한 사람들과 집단, 이들의 장소 경험 등도 포함됨
- ‘지역’ 그 자체보다는 지역의 정체성, 특히 공간 및 장소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기록화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임
- 지역의 정체성에는 이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활동과 그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제주학아카이브의 경우, 제주학 연구를 위한 원천자료로서의 ‘로컬리티’ 자료의 축적뿐만 아니라 제주학 연구 그 자체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필요가 있음
- 기록화(documenting) : 아카이빙 방법론
 -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활동과 역사를 기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집·생산하는 활동
 - ‘아카이빙’은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수집된 기록을 역사적, 행정적, 법적 가치가 인정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의미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 공공기관처럼 절차에 따라 자연적으로 기록이 생산·축적되어 보관되는 경우도 있고(기관형 아카이브), 특정주제나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음(수집형 아카이브²⁾). 후자의 경우, 목적의식적으로 아카이빙 대상을 포착하여 기록으로 생산·수집하는 활동이 핵심적이며 이를 기록화라고 지칭함
 - 제주학아카이브의 운영주체인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 및 사업 수행을 통해 상당한 양의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기관형 아카이브(센터의 업무활동 기록화)와 수집형 아카이브(로컬리티 기록화)의 절충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2.1. 지역사 전반의 포괄적 기록화

- 주요내용
 - 지역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공간 등 포괄적 기록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출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기반으로 함
 - 지역내 기록소장기관들의 협력적 수집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수집 대상 선정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내부자의 시각에 입각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를 선별하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 절차를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노동자역사 한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인력과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기록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구축된 기록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주요사례

- 국내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메모리³⁾ ‘경기정명천년 기록콘텐츠 개발(2017)’, 서울기록원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2016)’
- 해외 : 미국 서부 뉴욕 및 밀워키 기록화 프로젝트(1986~1988년)

2.2. 도시·공간계획 관점의 지역 기록화

■ 주요내용

- 급격히 변화하거나 사라져가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주민의 경험과 기억을 남기려는 역사문화적 관점의 기록화 운동도 이에 속함
- 해외의 경우 건축도시공간아카이브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공공기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축가나 설계사무소 기록 등 민간기록의 체계적인 축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지역에 대한 원주민들의 장소 경험과 기억의 기록화를 함께 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국내의 경우, 공간과 지역경험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 프레임워크와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체계적인 결합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광교 신도시 개발지, 종로 피맛골, 인천 차이나타운 기록화 시범사업 등), 대체로 일회적 사업을 통해 내부 공동체와의 연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기록화가 이루어져 체계적인 지속적인 기록화의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주요사례

- 공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부산시청),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사업(서울역사박물관, 2007~현재)
- 민간 :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부산대로컬리티아카이브⁴⁾ 中 부산항 기록화
- 민관협력 :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금천구청, 성공회대, 녹색협회)

3) <http://omeka.library.kr>

4) <http://localityarchives.org>

2.3. 공동체 관점의 커뮤니티 기록화

■ 주요내용

- 소수집단이나 (비주류) 공동체들은 자긍심과 연대의식,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기록을 수집·생산하는 운동을 통해 혹은 관련 연구자나 활동가들의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됨
- 해외의 많은 커뮤니티 아카이브들은 오랜 이민의 역사를 토대로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함
- 최근 국내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된 기록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마을아카이브) 공동체의 자발적인 기록화도 모색되고 있음

■ 주요사례

- 이우학교 기록팀, 풀무학교 전공부 아카이브, 성미산마을 아카이브, 대한마이크로노동조합 아카이브
- 부산대로컬리티아카이브 中 밀양송전탑대책위 기록화, 416가족협의회 아카이브 ‘416모으다’⁵⁾

2.4. 일상 및 전통생활사의 기록화

■ 주요내용

- 개인 생활사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남기지 못한 일반인, 소외계층의 일상생활사 기록의 수집과 보존,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사아카이브는 구술기록의 비중이 크며, 구술아카이브로 구축되는 경우가 있음
- 마을 민속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거나 전통생활과 관련된 구술 채록 : 구비전승, 필사본 등 민속자료나 지역사회 노인들이 암송하는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을 수집

■ 주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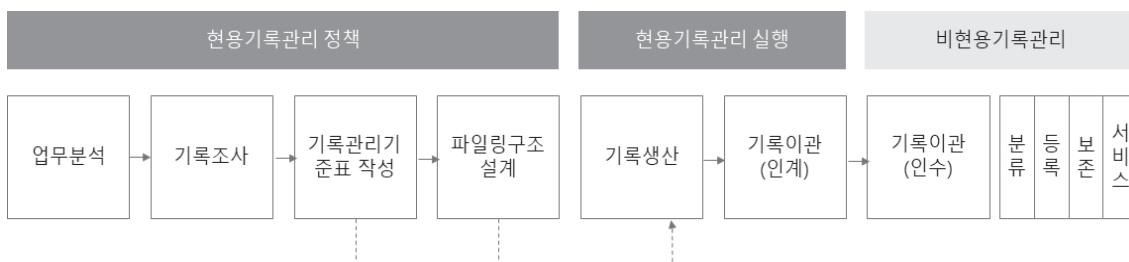
- 생활사아카이브(everyday life history archives) : 20세기민중생활사아카이브, 기억발전소, 인간과기억아카이브
- 민속아카이브(folklore archives) : 함한희 등 마을민속아카이브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팀

5) <http://archive.416family.org>

2.5.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생산기록 수집

■ 주요내용

- 센터 내 연구 및 사업수행팀에서 연구활동과정 중 혹은 그 결과로 생산한 일체의 자료를 제주학아카이브로 이관(이송·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센터 내 생산기록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함
- 업무관리시스템이나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환경에서는 파일링구조 설계시 공유폴더체계 마련과 파일명명규칙의 수립이 핵심적인 성공요인임



■ 주요사례

-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매년 발행되는 300여권의 연구조사보고서를 그 원천자료(사진, 구술, 영상, 문서 등)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받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민속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아카이브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음(연구자들이 결과보고를 위해 원천자료와 보고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설계됨)

2.6. 시사점 종합

접근법	기록화 방식의 특징	수집기록의 특징	운영체계 및 아카이브 유형	학문적 배경
지역사의 포괄적 기록화	-지역 내 기록소장기관 참여 -협력 수집 및 통합검색을 위한 종합적 검색도구 필요	-전 주제분야 포괄	-지속적인 협력수집 체계의 유지	-기록학
도시·공간계획 관점의 기록화	-사라져가는 공간의 이력 중시 -역사성 있는 도시계획을 위한 활용성 고려	-공간기록과 장소경험에 관한 기록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이미지 및 영상기록 중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사진아카이브	-건축/도시 계획
공동체 기록화	-공동체의 정체성 함양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접근 -참여형 기록화 방식 중시 -교육콘텐츠와 연계성 강조	-지역경험, 이주와 정착의 역사, 자신들의 뿌리에 관한 기록 -마을공동체의 민속자료	-커뮤니티 아카이브 -마을아카이브	-사회학 -인류학
생활사의 기록화	-미시사 관점에서 주변부 집단의 일상생활사 기록 -전통생활사의 기록	-구술사 비중이 큼	-생활사 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 -구술아카이브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표 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출처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에서 발췌)

- 위의 접근법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며, 하나의 기록화 사업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함께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의 중심이 되는 기조를 확인할 필요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카이브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라 지역 거점(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문화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 추진이 효적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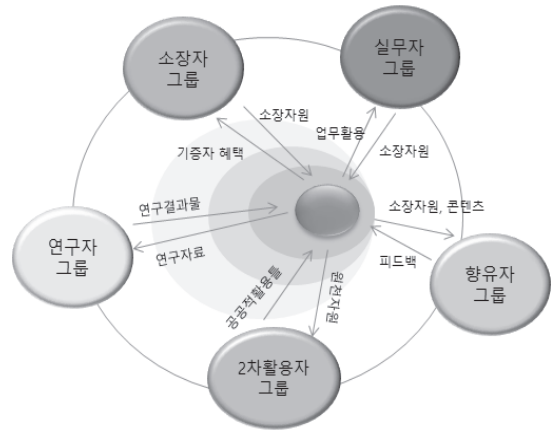
3. 로컬리티 기록화 관점에서의 제주학아카이브의 역할

3.1. 제주학아카이브의 필요성

- 이용자 측면에서 본 아카이브의 필요성
 - 제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이를 기억하는 방식 또한 다를 수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억들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써의 아카이브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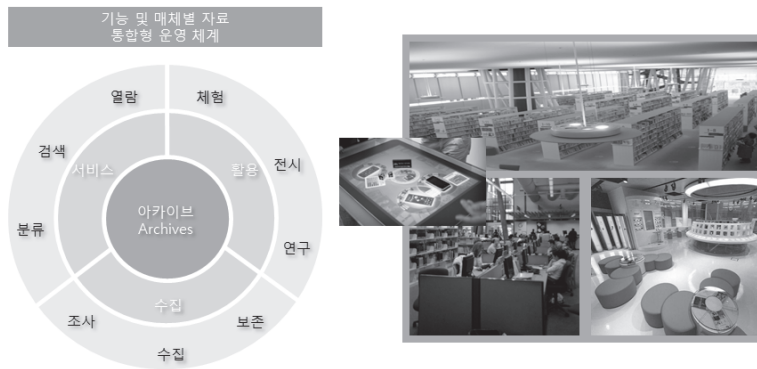
정체성(로컬리티)이 구현되는 현장임

- 대표적인 지역학아카이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별 니즈 반영 및 이들의 적극적 지지 확보가 필요
- 제주학아카이브는 실무자 그룹, 소장자 그룹(주민, 단체 등), 연구자 그룹, 2차활용자 그룹, (학습)향유자 그룹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



■ 제주학연구센터 내 기능 측면에서 본 아카이브의 필요성

- 국내외 유수의 문화정보서비스는 도서관과 아카이브, 박물관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서비스 및 복합형 공간의 형태로 가는 추세임
- 제주학연구센터 또한 도서, 기록, 박물관, 공간(장소)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아카이브 조직, 업무,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물리적 통합 뿐 아닌 시스템 및 정보의 통합을 통한 업무 및 서비스 일원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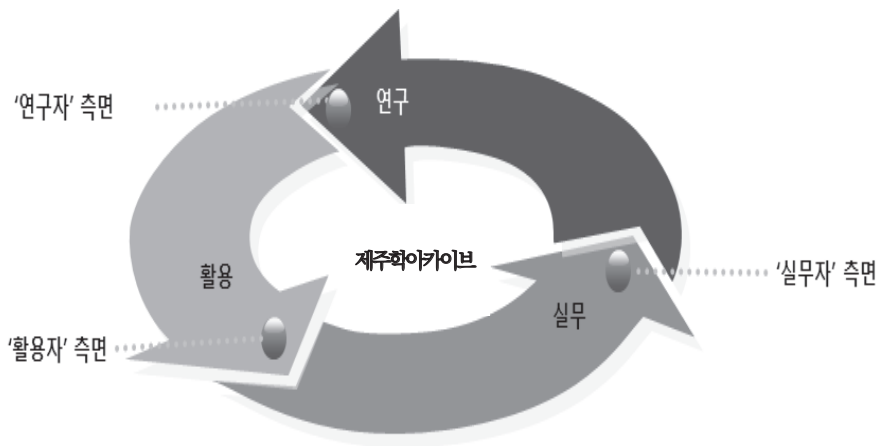
■ 제주학 분야에서 본 아카이브의 필요성

- 한 분야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서비스를 하는 아카이브의 유형이 최근 정보화의 추세임
- 지역개발 등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지역민 구성의 변화로 인해 관련 기록자원의 망실 가능성이 상존함
-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학 기록자원의 대표적인 기억저장소로서 전문적인 수집 및 네트워킹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3.2. 제주학아카이브의 지향성

- 제주학아카이브는 ‘실무-연구-활용’ 순환구도가 아카이브와 교류하는 선순환 체계로 실현되어야 함
- 선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빙 업무의 표준화와 수집의 일원화가 필요함

3.3. 제주학아카이브의 역할



- 제주의 역사와 지역민의 기억을 ‘증거하는’ 기억저장소
 -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연구지원사업, 교육 및 학술, 편찬, 제주어 연구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 지역정체성을 반영하는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등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여 제공하는 연구기관
- 민간 연구단체와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축운영하는 참여형 아카이브
 - 기록 수집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기억과 활동을 기록화 하는데 민간 연구단체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제주학 기록자원의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 전 과정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기능 개발
- 기록자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 소장자료를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콘텐츠로 보급하는 제주학 기록자원 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
 - 최근 아카이브에 대한 국내외 동향은 실물기록 보존보다는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전략이 주류를 이룸. 제주학아카이브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함

- 실물기록의 보존은 일정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아카이브(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역대표도서관 등)와의 협약을 통해 기탁·위탁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기록자원을 ‘공유하는’ 허브 플랫폼
 - 도내 연계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체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연계기관의 자료도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학 기록자원의 허브로 기능함
 - 지역 공동체,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자원을 쉽게 저장, 검색,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

4. 제주학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4.1. 발전단계별 아카이브 비전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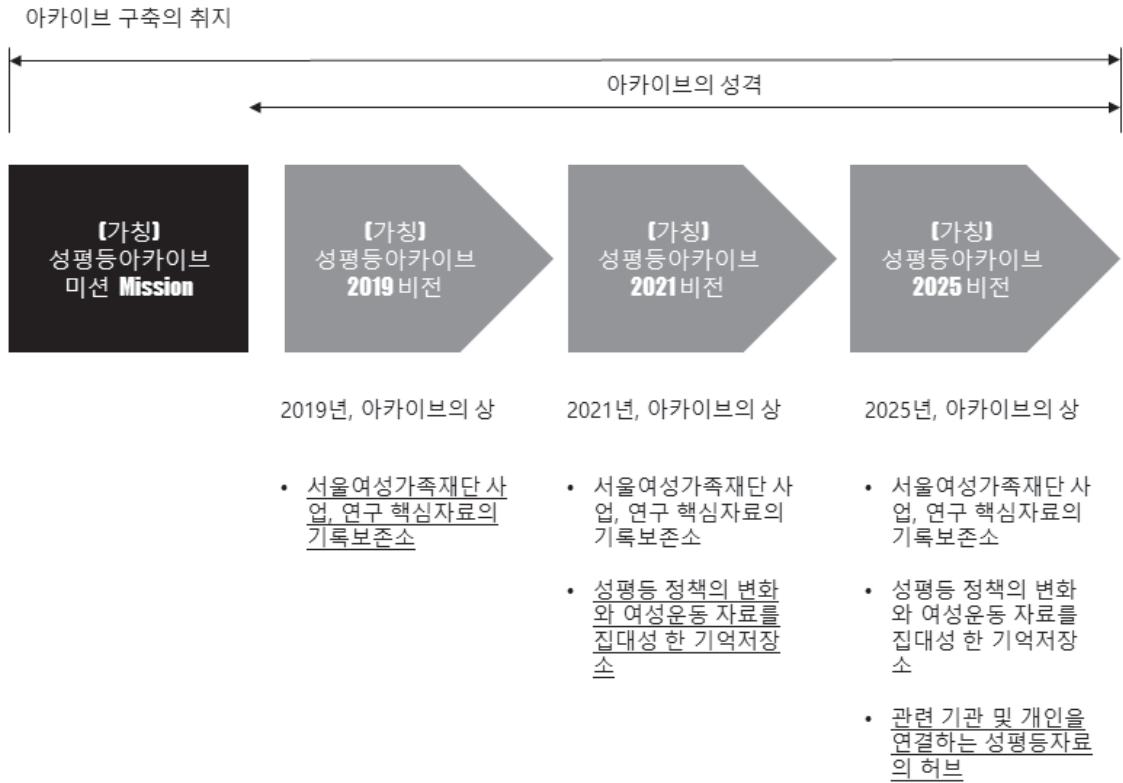
- 비전은 중단기적 목표로 구체적인 미래상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5년 주기로 비전을 수립하고, 아카이브의 구체적인 미래상에 도달하도록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2. 핵심이용자군 정의와 서비스 방향

- 핵심 이용자군에 따라 자료의 수집범위, 우선 수집대상, 소장 자료의 검색 및 탐색 도구 개발방향, 기록콘텐츠의 개발방향 등에 영향을 미침
- 제주학아카이브의 이용자 군을 이용 동기(참여, 업무, 교육, 연구, 취미, 지역)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이용자 군별 서비스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임

4.3. 자료의 수집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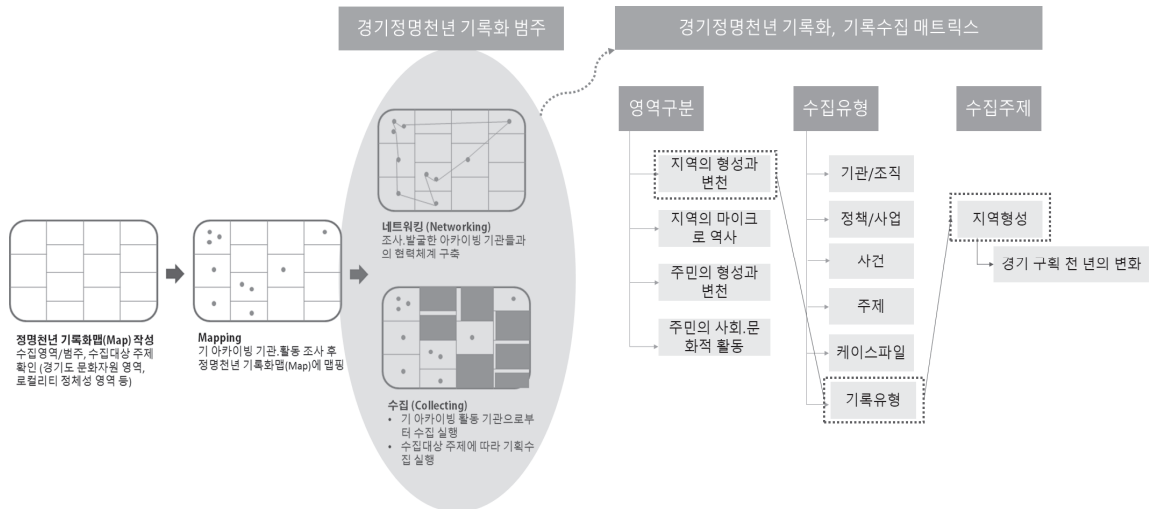
- 수집범위와 대상 정의, 체계적인 수집프레임워크 및 수집도구 등이 필요함
- 기록과 맥락을 함께 수집
 - 로컬리티 기록화의 경우 기억과 관계에 집중하여, 기록의 내용과 함께 그 맥락정보를 확보하며, 관련 정보간의 연결 포인트 확보가 중요함
 - 기록과 관련된 맥락정보(인물/단체, 사건, 연표 등)를 상호 연결함



〈그림 2〉 성평등아카이브의 비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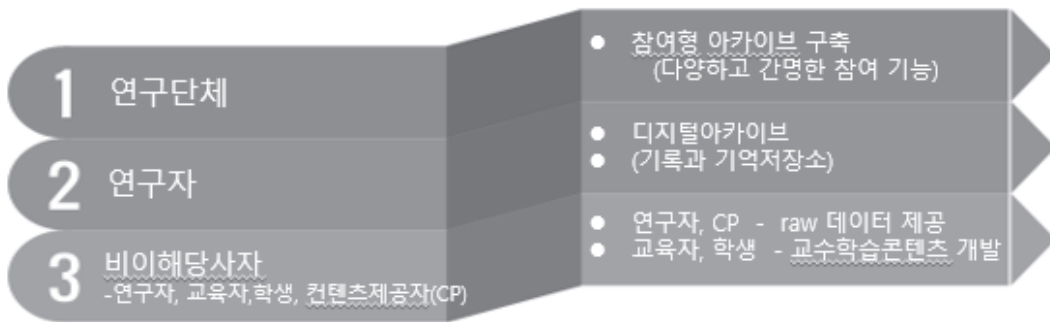
〈그림 3〉 성평등 아카이브의 핵심 이용자 군과 서비스방향 (예시)



〈그림 4〉 경기도메모리 기록수집 프레임워크

4.4. 아카이브시스템 구축(고도화)방향 확인

- 핵심 이용자군에 따라 아카이브시스템의 핵심 기능, 온라인서비스의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관리의 편의성(관리 기능의 적절성), 시스템의 지속성(안정적인 관리 및 유지의 가능성), 이용자의 참여 가능성(참여형 아카이브 지향),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온라인 콘텐츠 관리 기능) 등 고려



〈그림 5〉 핵심이용자군별 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방향

4.5. 아카이빙 업무 기능 및 기능별 프로세스 설계

- 기록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단계에서부터 수집 후 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아카이브에서 이뤄지는 모든 단계의 업무기능을 정의하고 기능별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 있음

4.6. 아카이빙 주요 전략 수립

- 제주학연구센터의 여건을 고려한 디지털변환 전략, 아웃소싱 전략, 장기보존 전략, 네트워크 구축 전략, 통합서비스 전략 등 수립

4.7. 업무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성안 도출

- 전문적인 제주학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조직·공간·장비 등 인프라 구성안 마련이 요구됨

제주학아카이브의 자료구축 현황과 과제

좌 혜 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발전방안

발표자 :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목 차

- I. 개요
- II.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현황
- III. 진단 및 발전방안
- IV. 추진목표 및 전략
- V. 세부추진 과제
 - 1. 체계적 자료수집 및 DB화
 - 2. 제주학아카이브관 설립 및 전담조직 구성
 - 3. 수집자료 개방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
 - 4. 연차별 추진계획
- VI. 기대효과

1. 개념

- ‘아카이브’란 용어는 원래 정부나 관공서 및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소장하여 보관하는 문서관
- 기록보존을 의미하는 보존 문서관을 뜻하는 불어 ‘Archives’에서 유래
-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대문자 ‘Archives’를 사용
 - 디지털 아카이브는 수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로 보관, 자료간의 관련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 동영상, 음향, 텍스트, 사진, 화상정보, 음악 등 각종 유형의 디지털 정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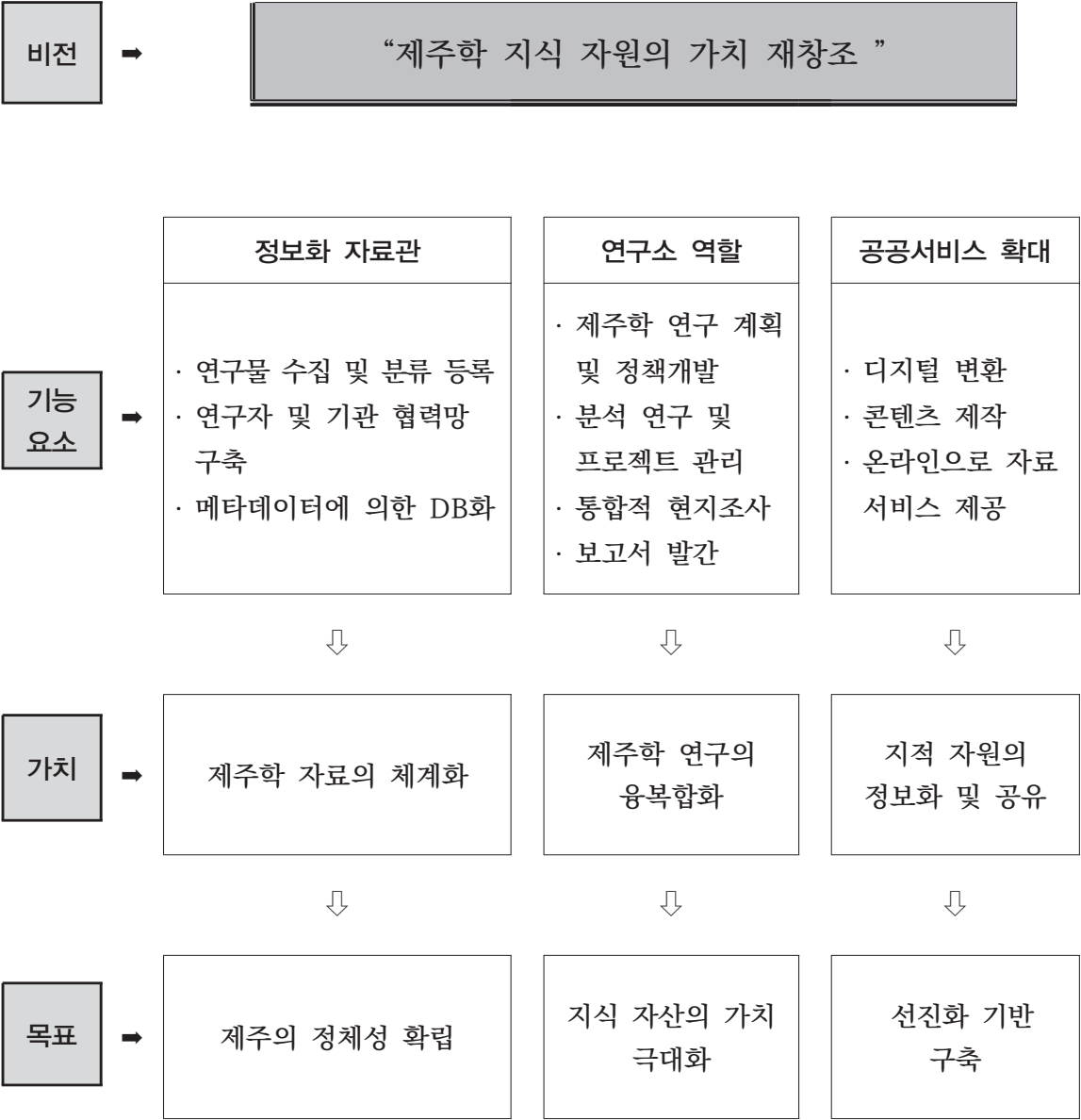
2. 목적

- 자료의 분류, 전시, 연구, 열람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전문 제주학아카이브관 구축
- 제주 관련 연구물, 고문서, 고문헌, 도서, 생활문화에 대한 구술자료나 영상자료(CD,DVD), 사진 등,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향(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료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기능 확대
- 21C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자원의 가치창조와 콘텐츠화 및 산업화를 위한 지식 자원 자료의 활용

3. 배경 및 필요성

-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주 자료들이 필요함
- 생활사 혹은 구술사, Life Story 등 사라져가는 민속영상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연구가 시급함
- 자료의 보존·관리 최적화를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구성이 필요함
- 다양한 기록자료(연구물, 사진, CD롬, 녹음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를 수집, 보존, 분석, 연구를 위한 기관이나 기구(직제)가 필요함

4. 비전과 목표¹⁾



제주학 아카이브 비전과 목표

1)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기본계획』, 2013.

1. 추진배경

- 급변하는 정세 속에 제주인의 삶과, 자연,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제주 세대들에게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전해줌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제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 도·내외 산재해 있는 제주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집대성의 필요성 제기
- 구축된 다양한 자료의 접근성 강화 및 문화자원으로서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2. 추진경과

- 2012. 8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14. 4월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http://www.jst.re.kr>)
- 2014 ~ 2018년 현재 46,536건의 문헌,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구축 및 서비스

3. 구축현황

- 현재 ‘제주학아카이브’ 46,536건의 제주학 자료 구축 및 공개함으로서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서비스 제공
 - 규장각 소장 ‘제주읍지’등 고문서와 고지도 디지털화 : 고문헌 60건, 고지도 11건
 - 제주학 연구물 9938건 : 단행본 91건, 보고서 2398건, 논문 4511건, 정기간행물 53건
 - 작가의 제주 관련 사진 등 개인기증 사진자료 9828건
 - MBC, KCTV, KTV 기증 역사 관련 동영상 1152건 및 역사 기사 19,500건 등
 - 제주 민요자료 : 구술자료 618건, 동영상 97건
 - 제주 무속자료 : 사진 1889건, 동영상 257건
 - 제주 해녀자료 : 사진 1106건, 동영상 17건

제주학아카이브 콘텐츠 구축실태(연도 별)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3	제주학 연구물 DB (도청 등 기관, 단체 발간, 개인기증)	970건	자료 선정 후 학문 분류
	신문기사	300점	제민일보
	-고문헌 원본(규장각 소장) -고지도(규장각 소장)	-‘제주읍지’ 등 45종 47책, -고지도 8매 총 55건	규장각 소장 (역사, 지리 관련)
	사진(서재철기증)	928(점)	제주해녀 등
	동영상	147편	제주문화방송(문화상징100점)
	구술자료(음향)	144편	제주민요(센터소장)
	총 수량	2544점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4	제주학 연구물 DB	609점	제주학회 학술지 및 기증자료
	역사기사 링크	2030건	조선왕조실록(1716), 고려사(258건)
	사진 (강만보기증)	800점	성읍민속마을 , 한라산, 자연
	동영상	188편	제주민요(KCTV), 대한뉴스(링크)
	구술자료(음향)	79편	제주민요
	총 수량	3996점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5	역사기사	282건	비변사등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사
	신문기사	545점	한라일보 제주기사
	구술(음향)	900건	자체 수집
	사진	500(점)	제주해양유적 및 문화
	동영상	126건	제주굿 50점, 민요 76건(KCTV기증)
	총 수량	2327 점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6	제주학 연구물 DB (도청 등 기관, 단체 발간, 개인기증)	1688건	제주문화원 발간물(46), KCI 제주관련 논문(1642)
	신문기사	4625점	제주신보(324건), 역사신문(4301) 등
	역사기사	14067건	일성록(1067), 승정원일기(13000)
	사진	379(건)	인물전설 포함
	동영상	77편	제주굿영상(50건), 전설
	구술(음향)	100편	제주전설
	총 수량	20936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7	제주학 연구물 DB (도청 등 기관, 단체 발간, 개인가증)	5002건	국회도서관(610건), 국립중앙도서관(457건), NDSL(1675건), RISS(2645건), 민주화운동사료집(5건)
	신문기사	2810건	제주대학교 신문자료
	고문헌	18권	고서적 18권, 2000페이지 업로드
	사진 (김기삼 기증)	1000(건)	동북본향당 사진
	동영상	101편	제주굿영상(50시간 분량)
	구술자료(음향)	100편	무속신화
	총 수량	9031	

제주학아카이브 관리 운영 출연금 예산액 (2013~)

구분	예산액	비고
2013	141,800	출연금(문화정책과)
2014	60,300	출연금(문화정책과)
2015	53,000	출연금(문화정책과)
2016	105,600	출연금(문화정책과)
2017	200,000	출연금(문화정책과)
2018	200,000	
총예산	760,700	

4. 제주학 디렉토리 설정

- 한국십진분류법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듀이십진분류법(DDC: Dewey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의 주류를 바탕으로 모든 지식 분야를 총류(總類)(0), 철학(1), 종교(2), 사회과학(3), 순수과학(4), 기술과학(5), 예술(6), 언어(7), 문학(8), 역사(9) 따위 열가지 주류(主類: section) 강목(綱目)으로 구분
- KDC는 계층적 분류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학문이나 주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점차 구체적인 것들로 전개하게 됨

가. 분류 및 통계(2018. 08. 20)

분야별 분류			
총류	186	제주학	129
		연보	8
		학술조사	33
		기타	16
철학		8	
종교	2116	무속	2076
		기타	29
		불교	11
사회과학	10383	여성	1588
		문화	2611
		민속	648
		사회	2049
		교육	685
		행정·법	784
		관광	635
		경제	751
		정치	268
		기타	4
		동물	625
		식물	698
		환경	829
순수과학	3438	해양	812
		지질	434
		기타	13
		의,식,주	943
		건축	149
		농축업	526
기술과학	2807	수산업	312
		의학	313
		산업	552
		기타	12
		음악	779
		미술	75
예술	926	기타	72
		제주어	424
		기타	7
언어	431	구비문학	779
		현대문학	34
		기타	77
문학	890	고고	395
		지리	59
		제주사일반	23745
역사	25358	사회	109
		문화	670
		4.3	67
		인물	247
		항일운동	25
		기타	41

나. 유형별 분류 및 통계

유형별 분류			
제주학DB	9938		
고문헌	119		
해외문헌	7		
고지도	11		
사진	7390	버섯	200
		야생화	163
		노루	31
		곤충	163
		새	114
		목축	128
		포구	267
		해녀	1106
		무속	1889
		오름	141
		지역사회	2218
		원담	86
		성읍	355
		문화재	1513
		역사기사	242
		해녀음식	639
동영상	756	한라산	3
		자연유산	4
		제주인	30
		해녀	17
		문화상징	103
		대한뉴스	141
		민요	97
		제주어	101
		무속	218
		제주사	73
		기타	181
구술(음성)	751	구비전승	37
		민요	618
		생애사	57
		제주어	5
		기타	40
신문기사	5118	제민일보	215
		한라일보	593
		제주신보	424
		역사신문	3002
		제주대신문	884
제주역사	19485	신증동국여지승람	3
		고려사	258
		조선왕조실록	1753
		비변사등록	279
		승정원일기	16123
		일성록	1067

III

진단 및 발전방안

1. 현 진단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구축한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 구축·공개 자료는 제주 관련 자료 중 일부분임
- 관공서, 공공기관, 개인소장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수집에 따른 저작권 해결의 문제, 운영인력 및 수장 공간 부족, 정보시스템 용량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2. 발전방안

- 도 내·외 산재해 있는 제주관련 중요자료의 체계적 자료수집 및 DB화,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의 확대구축 및 전담 운영조직 신설의 필요성 제기
 - 현재 제주학센터 전담인력 1명 → 독립기관 설립 및 전담조직 구성
- 도내 유사 아카이브시스템의 통합화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일원화

IV

추진목표 및 전략

1. 목표

- 도내 유사 시스템 통합 및 도내·외 산재한 중요 제주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DB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한 세계최고 수준의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 연구 및 교육,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자료로서 단순히 축적된 자료가 아닌 아카이브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통한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재생산
- 제주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기록유산으로 제주 미래세대에 보존·전승

2. 전략

- 도내 공공기관 유사시스템 통합
- 도내·외 산재한 중요자료 수집 및 DB화, 고품질의 정보제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제주아카이브관 설립 및 전담조직 구성
- 제주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개방 서비스 운영

1. 체계적 자료수집 및 DB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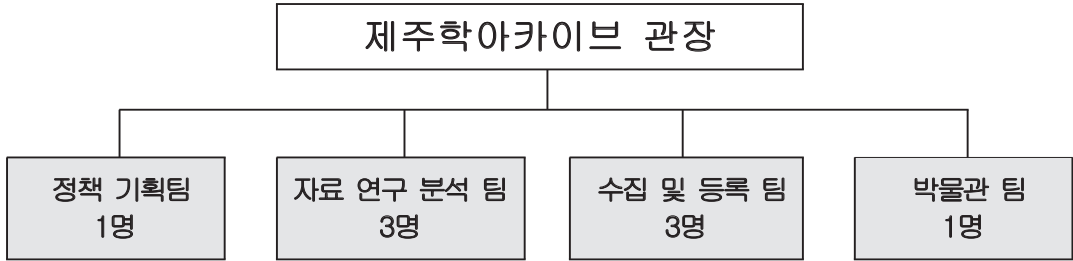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추진목표 : 현재 3만7천 건의 자료를 2020년까지 10만 자료 수집 및 구축
- 사, 도, 양 행정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기관 등 소장 및 유사시스템 및 수집자료 DB 통합, 도내 유일 국제적 수준의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 도내 유사시스템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정보제공 서비스 기관의 일원화로 정보 이용자 편리성 제고
 - 관공서, 공공기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텍스트(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파일 등을 관리전환, 기증, 매입
 - 자료 디지털화, 데이터 이력관리, 분류, 디지털 업무 표준화 등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모델로 메타데이터 설정 및 자료의 보존관리
 - 수집자료의 체계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시스템 확대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 확보

2. 제주학아카이브관 설립 및 전담조직 구성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간)
- 설립장소 : 제주시 소재
 - 정보이용자 접근성 고려 및 이용가능 공유재산(토지 또는 건물) 파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제주아카이브 공간 750 m^2 확보

시설명	용 도	규모(㎡)
이용시설	도서 및 열람, 전시 등 대민용 시설	300
수장시설	아카이브 수장실, 도서서고,	150
업무시설	아카이브실, 대출·사무공간	150
연구시설	연구실	150

- 운영인력 : 4개팀·9명(연차별 운영인력 확대)



3. 수집자료 개방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

- 사업기간 : 2018년 ~ 지속
- 사업내용
 - 수집자료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료제공 서비스
 -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공립 전시시설 온라인 관람서비스 제공
 - 제주연구 및 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자료개방(온·오프라인 동시)

4.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	주요 추진계획	소요재원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아카이브 공간 600m^2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자료 수장시설, 업무시설, 정보이용 열람실 등 ○ 아카이브 확대구축 전담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및 DB구축 및 운영 인력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확보 600m^2 - 내부 전산장비 등 구축 - 자료수집 등 사업비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인력운영 4명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발간: 연 2건 ○ 음원, 사진, 동영상 등 자료구입 및 수집 등 : 3만건(연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등 사업비 - 전산시스템 운영 등 - 인력운영 4명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아카이브 서비스관 오픈 ○ 아카이브 자료 수집 지속 10만건 목표 ○ 수집 자료의 연구분석 보고서 발간 : 연 3회 보고서 발간 ○ 국내외 아카이브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협력망 확대 ○ 전담조직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온·오프라인) 서비스관 운영 등 사업비 - 전산시스템 운영 등 - 인력운영 8명

- 도내 유일 국제적 수준의 통합 아카이브관 조성을 통한 선진화된 문화자원시스템 구축
- 체계적·과학적 통합자료 관리 및 고품질의 정보이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료가치 재생산
-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기반 제공
- 구축된 자료의 교육, 연구, 창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이용자 친화적 지역인문자원 통합관리모델 연구 : 제주학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최 효 진

새공공 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연구위원

연구배경(1/2)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년도 인문활동가 양성파견사업

- 사업기간: 2017.8.-2018.3. (2017년 처음 시행)
- 지원근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
- 사업목적

- 인문활동가 양성·활용으로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및 지역 친화적 인문활동 모델 구축
- 미취업 인문전공자의 지역 기반 활동기회 제공으로 우수인력의 사회적 활동 촉진
- 민간학 협력 인문진흥 지원체계 마련으로 인문정신문화 선순환 생태계 창출에 기여
- 주최/주관: 문체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고려대 산학협력단

○ 활동유형

- 교육전수자: 도서관, 문화원, 지역 대학 등 문화기관 내 교육/강연
- 촉진소통자: 동아리나 단체 활동 (독서동아리 등)
- 연구개발자: 인문학 및 지역 콘텐츠 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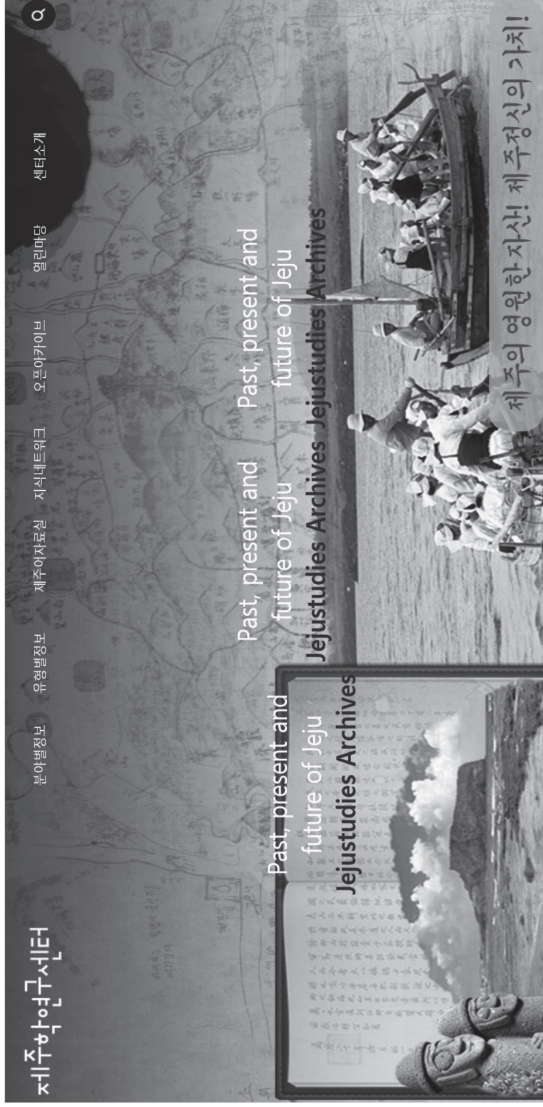
연구기간: 2017.10.~2018.2. (4개월)

10개 지역 팀 중 '제주하카카이브 연구팀' 1등

타 유형 인문활동가들의 수행결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모델 사례로 제시

구분	교육 전수자	촉진 소통자	연구 개발자
역할	교육강의, 강연 등 기획 및 실행	- 동아리단체 구성 운영 - 인문 활동 기획, 운영	인문 분야 연구 수행 (인문 관련 지역 콘텐츠 및 문화저널 등)
전공		인문 및 인문융합계열	미취업 전파자 (원 단위 모집 선발) *문화 전문력 면담 지원
지역	미취업 선택도시	미취업 현사 및 석·박사	
주 프로그램	고용보험피보험자지역내역서 제출 必	- 인문분야 동아리, 단체 구성운영 - 지역 인문 축제 기획 운영 - 지역 인문 도·내생기 확 운영 - 지역의 공간, 공동체, 타문화기관(도서관 등) 융합 활동프로그램 기 획 운영 - 청소년 특산문화교(을 매년)	①도서관, 박물관, 미술 관 등 문화시설 연계 지역 인문 역량강화 방안 ②자유주제(인문학자 + 과학, 문화예술 등 융합연구 확대)
예산 활동지	미충공동체, 도시재생공간,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출간체, 지역사회,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활동비	기금 : 시간당 150,000원	기금 : 월50만10원 활동비22만원	연구수행비 : 연구 수 준 및 후속 연계에 따라 500 or 1,000만원 차등 지급
지원	내금 : 시간당 120,000원	내금 : 월50만10원 활동비18만원	
규모	총 60여 명	총 60여 명	총 10여 팀

연구배경(2/2)



- 여행지로써만 제주도를 찾았던 기록학 연구자로서 제주 지역인문자원 수집 및 활용에 개인적인 관심
- 2012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14년 3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제주학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자료수집 방안을 연구하여 소장자료의 양적, 질적 증대 방안을 찾고자 함.
- 지역문화아카이브의 특수성에 따라, 공공 영역 기관이나 단체 외에도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아카이빙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함.

연구진 구성

구분	구성원
연구수행팀	최호진 (제1연구자, 기록학 박사과정) 김혜준 (문화정책연구자,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김규철 (영화감독, 서귀포 남원초 영화제작 강사)
자문위원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관리팀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자문 *제주학아카이브 인지도 및 활 용가능성, 지역인문자원 수집 관련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생팀 외도동 마을미디어추진위원회 YTN 제주취재본부 제주MBC 제주 지역 마을아카이빙 연구팀 랩왓+왓집 마을탐방 시민모임 마실감져 제주 지역 인문활동가모임 이섬수다 지역 문인, 독립창작자(다큐멘터리, 극영화, 사진)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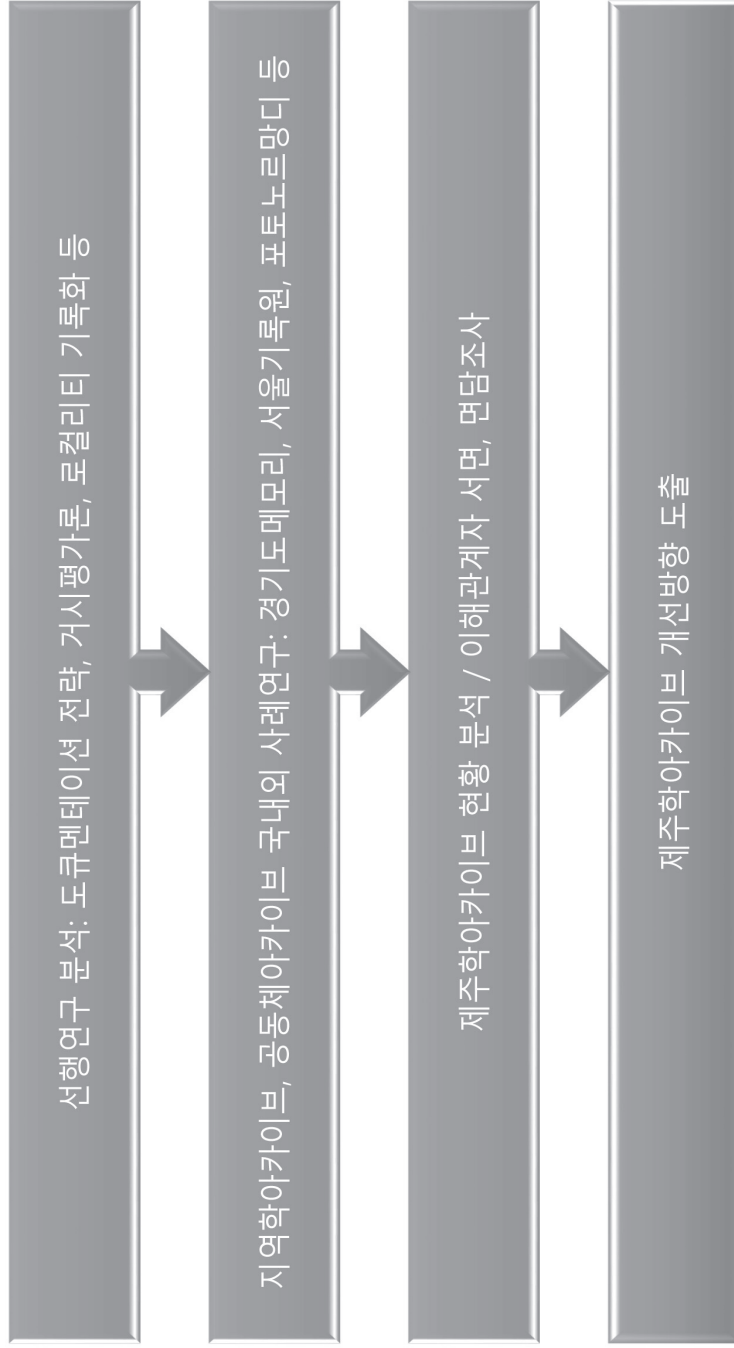
공동체 참여형
수집매뉴얼 개발

수집(대상)콘텐츠
활용방안 제안

제주학아카이브
이용자 연구

- (가칭)제주기록수집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연구함.
- 각급 학교, 대학 및 연구기관, 방송언론인, 영화 및 드라마 창작집단, 관광객, 이주민 등 다양한 성격의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이들이 제주학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

연구방법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 ✓ 2018년 2월 현재 37,233 여 건 자료
-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성과
 - ✓ 제주학 분류방식을 개발
 - 제주어, 제주4.3사건, 한라산, 해녀음식 등 지역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대분류로 설정
 -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마련
 - 제주학회, 한라도서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수집기반 마련
 - ✓ 소장자료 접근성 제고
 - 오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수집자료 접근성을 제고시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자료 정보를 물론 원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구분	유형	수량 (단위: 건)
서울대 규장각 소장 고문헌	종이기록물 스캔본	60
	종이기록물 스캔본	11
서울대 규장각 소장 고지도	전자문서	338
	전자문서	658
단행본	전자문서	2731
보고서	전자문서	426
논문	전자문서	7462
장기간행물	디지털이미지	756
개인기증 사진자료	디지털이미지	37,233
제주관련 영상 (MBC, KCTV, KTV)	디지털영상	
합계		

제주학아카이브 서비스 자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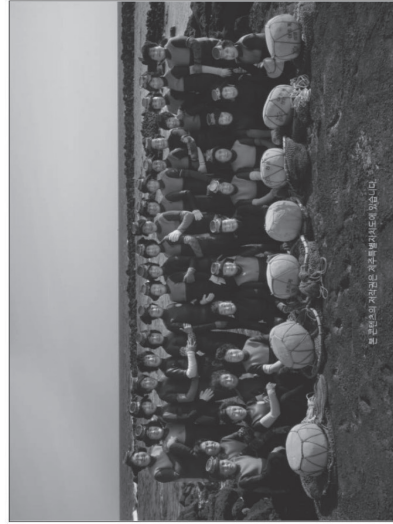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향후 과제 1) 분류방식 기준이 모호함.

검색예시
 검색창에 '제주해녀'를 입력하고 검색결과를 찾을 경우, '2017 제주해녀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사진기록물은 분야별 분류에서는 '사회과학-여성'에 분류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기록물은 '기술과학-수산업'에도 해당하는 자료로 볼 수 있음.
 분야별 분류 방식에 따라 제시된 콘텐츠들에서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의한 자료 검색결과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움.

2017 제주해녀의 얼굴 - 조일어촌계 해녀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여성



형태	사진
학문분야	사회과학 > 여성
생산연도	2017
저자명	제주학연구원
소장처	제주학연구원
조희	11
첨부파일	0 조일(우도면).이성 은.jpg

가-

- * 건(item) 단위 자료 분석 및 자료기술 고도화
- * 다중분류체계 적용
- * 분류기준 명확화
 - '분야별 정보'와 '유형별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유형별 정보'에 주제명, 출처명 혼재
 - 분류명에 일반명사(예/해녀)와 고유명사(예/한리일보) 혼재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향후 과제 2) 타 기관과 협업 기반 지역인문자원 수집/관리 톨 마련

1 자료대상

제주학 연구물, 간행물, 고문서 등의 문헌, 구술이나 영상자료(CD, DVD), 사진 등의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

1. 개인(학자 또는 시민)가 등에 수집하고 있는 자료
2. 기관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

2 기증절차



기증(유탁) 물품 상세정보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기록물명	<input type="text"/>	* 유형	<input type="text"/>
* 생산기간	<input type="text"/>	* 수량	<input type="text"/>
* 가격	<input type="text"/>		
* 기록물 설명	<input type="text"/>		

- 제정 심사 이후 온라인 기증신청하여 신뢰도있는 시민 참여 (2018년 이후 리뉴얼)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제주학 관련자료 온라인 수집/자료정보 제보 서비스 가능
- 기증자공간 마련: 자료기증자들의 제정 부여, 기증된 자료들의 관리/활용 과정 확인 기능 제공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향후 과제 3) 온라인서비스 고도화


성읍마을
유형별정보 > 사진 > 성읍
사진을 영대상인 '성읍마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
해당 위치정보에 대한 구글 지도 제공가능



형태: 사진
학문분야: 사회과학 > 민족
생산연도: 1990년대
저자명: 서재필
소장처: 39
첨부파일: 9
400_성읍마을.jpg

기증자 및 저자인 '서재필'에 대한 정보 필요
서재필 관장이 기증한 다
를 사진자료와의 연계 필요

제주시의 향연
'제주시의 향연' 관련 역사, 인물, 이등요
제주시의 향연, 향연, 향연, 향연, 향연



형태: 구술(음성)
학문분야: 예술 > 음악
생산연도: 2003
저자명: 안영복
소장처: 제주시립박물관
조리: 7

저자 '안영복'이 노년때부터
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음.
사람인지 알 수 없음.

- '제주시의 향연'에
대한 정보 누락
- 제주시립박물관
기증한 다른 자료와의
연계 필요

• 유형별 기록물 특수성 반영한 메타데이터 제공

- ✓ 사진: 관련인물/장소/출처/키워드/태그
- ✓ 음성: '구술채록' 외에도 민요, 제주어 등 하위분류별 정보제공수준 차별화
- ✓ 동영상: 영상길이, 녹취록 제공, 타임코드별 세부내용 제공하여 부분접근 가능성 제공

연구내용

- 도내 제주학 유관아카이브 연구
 - ✓ 제주탐라기록관리소, 한라도서관, 국립제주박물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제주시, 서귀포시) 등
- 국내외 지역아카이브 운영사례 분석
 - ✓ (국내)경기도메모리, 서울기록원, 밀양기록원, 밀양끝나지 않은 이야기,
 - ✓ (프랑스)서쪽나라기여여행, 포토노르망디프로젝트 등 제주학아카이브가 참고할만한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사례 분석
- 제주학아카이브 개선방안 도출
 -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 온라인플랫폼 리뉴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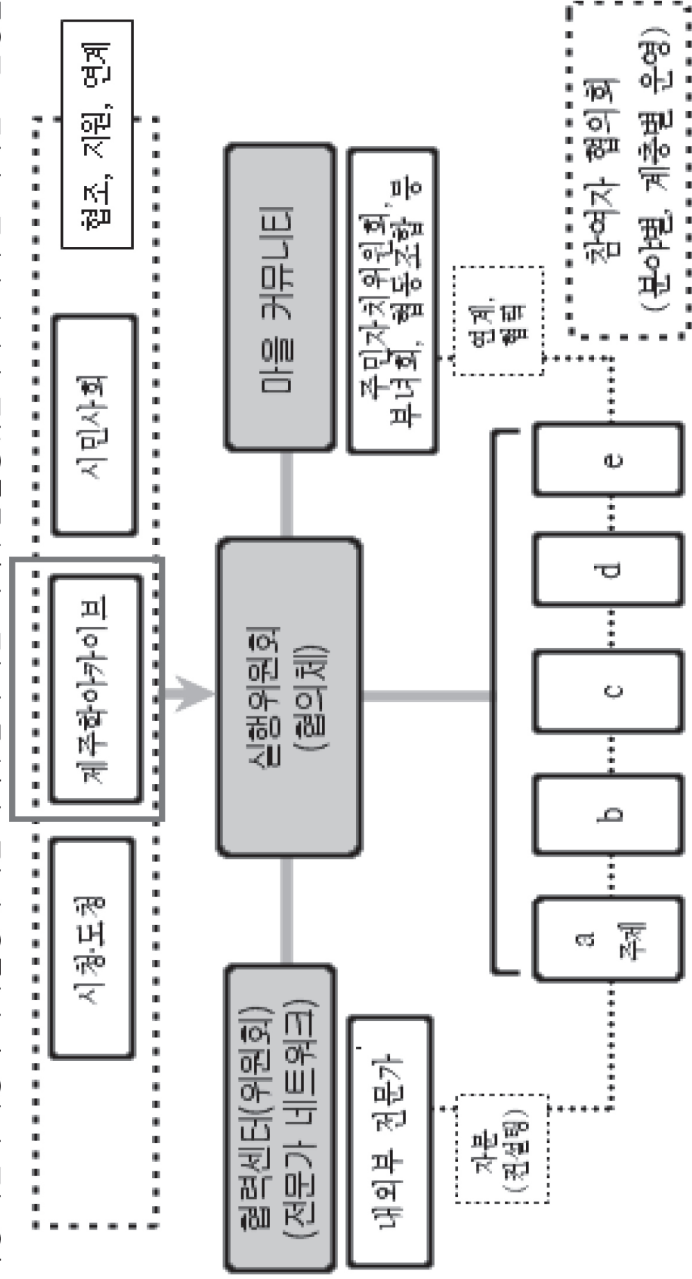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제주탐라기록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고 열람서비스되는 기록물 목록 공유 제주학아카이브가 목록을 제공받아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목록을 제공할 수 있음. 민간기록물 수집 협력 : 제주 고유의 민속, 언어, 신앙, 구술 등 실물자료 기증시 수장고 공간 공유
한라도서관	도내 대표도서관, 제주학연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2011) 양 기관 기증자료 디지털 시본 공유 문서, 도서 등 간행물 형태 기증자료 보관공간 공유 제주문화실 등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기록물 전시 및 강연, 워크숍 기획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학연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12) 제주학 관련 특별전 도록 PDF파일 및 도록 편집 단계에서 수집한 원천데이터 공유 기증유물에 대한 디지털 시본을 공유하고 해당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 전시 공동 기획 시. 발굴조사 보고서 및 관련 사진, 조사 지역 이해관계자 인터뷰 자료 공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년 제주도, 2012년 서귀포시 참여 오픈API를 통해 두 지역 디지털제주문화대전,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검색결과를 제주학아카이브에 임베드(Embed) 를 제주학아카이브가 부족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주학아카이브에서 추가적인 맥락정보 제공

제주학아카이브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연구내용

• 제주 기록수집 네트워크 운영방안

- ✓ 특정 기관의 하향식 의사결정에 의한 기록수집이 아닌 기록수집실행위원회가 주체가 된 거버넌스 운영을 제안함.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이용자 연구

✓ 향후 제주학아카이브의 이용자를 콘텐츠수요에 따라 그룹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과 과제에 대해 연구함.

유형 분류	제공 서비스
기록사	(Who's Who&What) 메타데이터 공유
생활문화 · 평생학습 매개자	주기적이고 정례적인 네트워크 교류회를 통한 정보 제공 아플리에 형식으로 진행하여, 제주학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이 그룹 이용자가 활용가능한 자료와 정보 제공
인문 연구자	(Who's Who&What) 메타데이터 공유
문화콘텐츠 창작자	(신청/승인 과정을 거친) 문화원형 정보 제공 (스토리텔링, 인터랙티브-다큐 등 활용 방식/포맷 공동 모색)
융합형 기획자 (관광 PD)	(신청/승인 과정을 거친) Who's Who&What 정보 제공
전체 참여자	참여형 공동체미디어 운영 참여자의 역량이 배가되는 콘텐츠 공동 큐레이션

참여형 아카이브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안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콘텐츠 활용계획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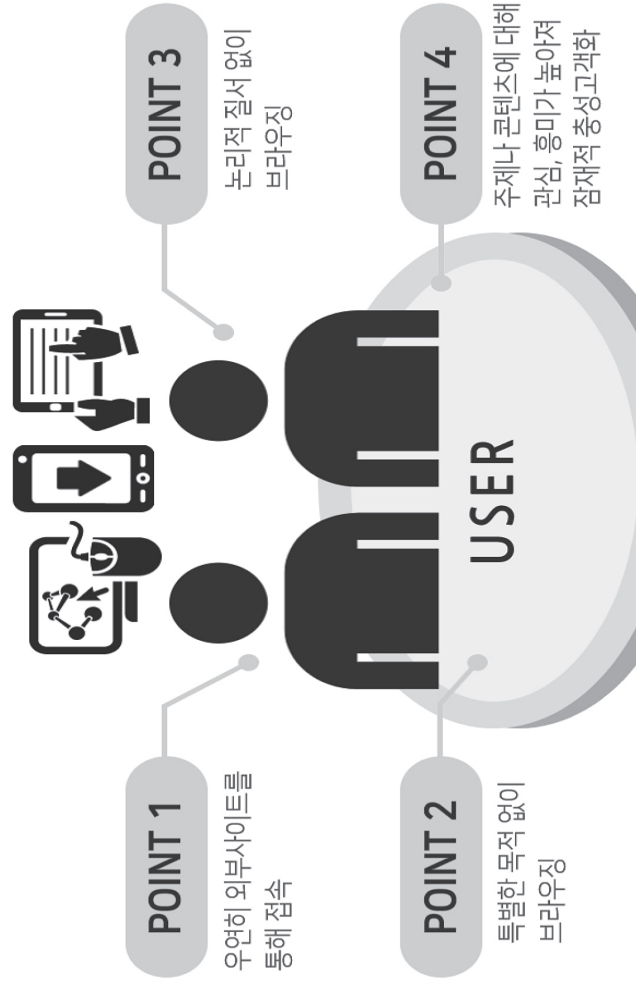
- ✓ '제주학'을 특징지을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선정
- ✓ 수집기록물 가운데 이에 맞는 기록물을 선별
- ✓ 유관 기관에서의 네트워크 수집방안을 제안
- ✓ 인문활동가 고** 씨의 "우리는 표지석 탐험가" 활동 결과물을 비롯해 제주학 관련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키워드	의미 및 선정이유
제주민요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민요사전에 수록된 민요들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제주학아카이브 수집기록물을 선별함.
제주해녀음식문화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받은 문화유산으로,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행했던 '제주해녀음식문화' 연구결과물을 활용.
재일제주인공덕비	'재일제주인'은 제주도 현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기록한 '공덕비'가 제주도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물인 "북제주군비석총람", "재일제주인공덕비"라는 공간행위를 활용하여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함.
제주시 원도심표지석	제주시원도심 표지석은 도심 개발 과정에서 도심 속 각 지점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각 비석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현대사의 디테일을 이해할 수 있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인문활동가 양성파견사업'의 제주도 지역 활동 중 하나인 '우리는 표지석 탐험가'의 결과물을 활용함.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키워드 선정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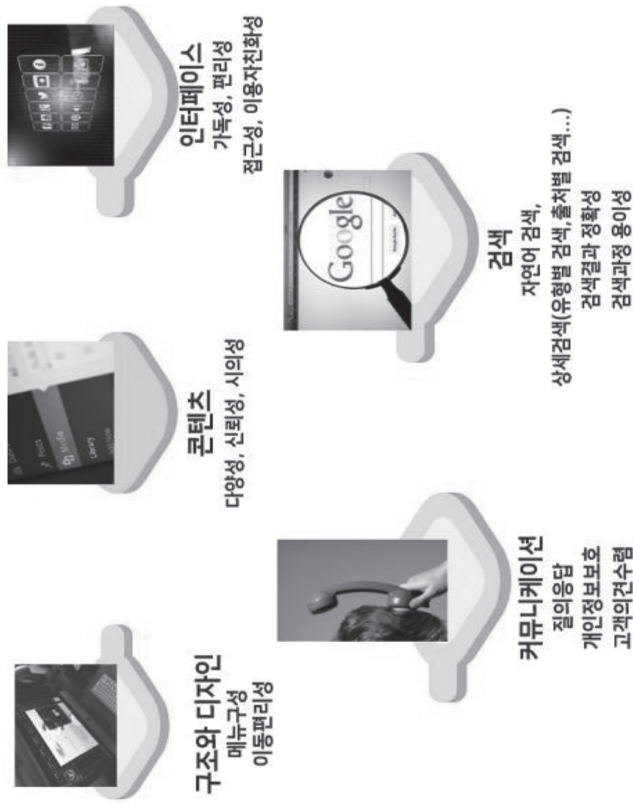
- 온라인콘텐츠 이용자의 행동특징 분석



심성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의 체계와 절차'
 "대통령기록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전략 전문회의의(2009.3.)"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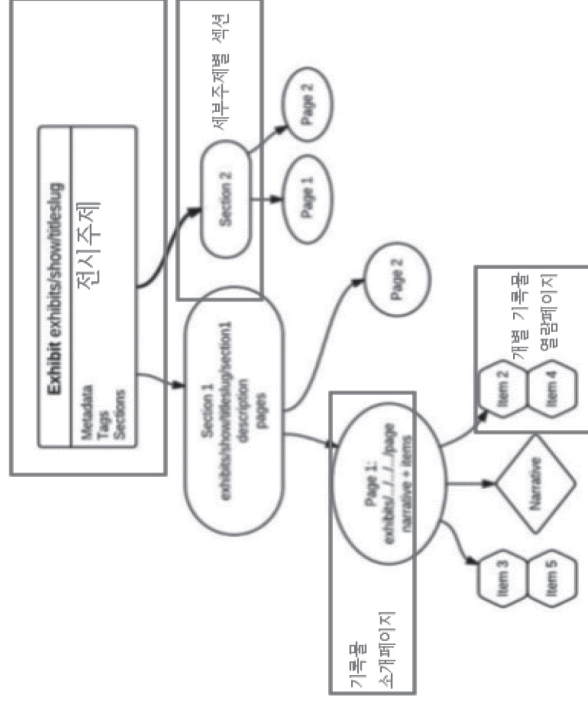
- 기록관 웹사이트 평가기준



이윤주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 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16), 147-200, 2007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콘텐츠 개발 기본구성
 - ✓ 온라인콘텐츠란, 개별 기록물, 기록물을 설명하기 위한 서비스 메타데이터, 각 아이টে을 설명하는 기술수준, 화면구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임.
 - ✓ 전시주제-세부주제별 색션-기록물소개페이지-개별기록물 (4단계 구성)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콘텐츠 개발1 -제주민요
 - ✓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노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여건에 따라 노동요의 비중이 큰 편
 - ✓ 해녀소리, 밭밟는소리, 관망요, 타작소리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타 지역에는 없거나 흔치 않은 노동요가 많음.
 - ✓ 멧돌작업, 방아작업, 물질 등 생업에 참여한 여성 중심 전승
 - ✓ 제주도 고유 언어인 제주어를 통한 강한 지역성 표현



음원 [뿌리깊은나무판소리], 제주도
표준악보, 배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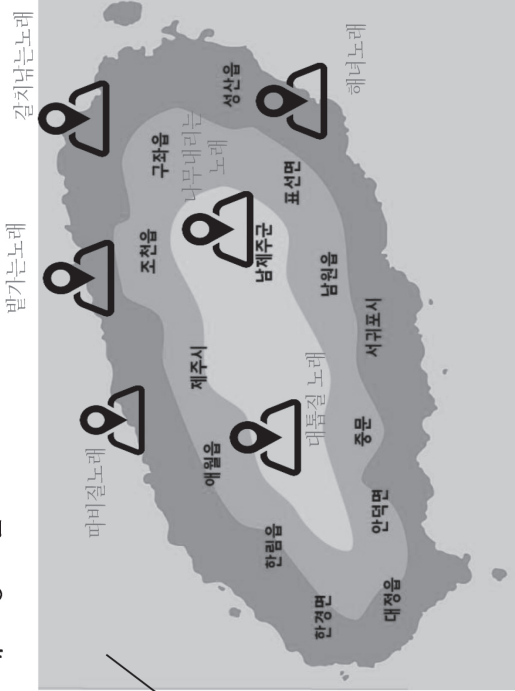
♩ = 92

(배)
이어도사나 - 아 - 아 - 이어도사나 아 -- 아 이어도사나
(방)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오 별것임 - 어 - 어 - 어 별 가 고 오 -
(노를져어)
오 별것임 - 어 - 어 별것임 - 어 - 어 별 가 리

진 도바람 (바다) 아 - 플로나가자 아 - 이어도사나
진 도바람 플로나가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도내 노동요 분포



(색상설명글)

제주민요의 역사는 문헌기록상 고려 충렬왕 때 이계현의 “익제난고” “소악부”의 ‘수정사’와 ‘탐라요’ 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제주민요 중 여성들이 땃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짚으면서 불렀던 ‘땃돌 방아노래’ 는 그 가사가 한 시대의 풍속과 더불어 섬 여성들의 정서가 노래되고 있다. (...)

현재 ‘제주민요’ 라는 명칭의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해녀노래’ 가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

제주 민요의 여러 갈래 가운데 노동요는 노동기능에 의해 불려지는 것을 말하는데, 농사관행에 따른 것을 농업요, 어부나 해녀들의 작업에서 불려지는 어업요, 산에서 시무나 풀 작업시 부르는 임업요, 관모공예시 불려지는 관망요 등이 있다.

제주도에서 노동요가 불려진 지역은 어디일까?
지도를 따라 노동요를 들어보자!

농업요 듣기

어업요 듣기

임업요 듣기

제분요 듣기

관망요 듣기

잡역요 듣기

제주 노동요
분포지역을
일러스트
지도 위에
표시

표시한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

탭을
클릭하면
세부제별
노동요
듣기페이지로
이동

농업요 듣기

(페이지선택권)

육지와는 달리 제주에서는 벌일에 따르는 노동과 함께 부르는 농업 노동요가 흔하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밭을 밟고, 여름날 콩밭이나 조밭을 매며 가을이 되어 곡식을 타작하는 일년의 농사 행위는 엄청난 고역이었다. 과거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지만, 했던 도민들에게 있어서 노래는 부치는 힘을 돋우거나 박자를 맞추어 일의 진행을 돕기도 했다.

제주학이카이브 농업요 목록

아이템	설명
파비질노래 (RC00008614)	'파비'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척박한 땅을 일구고, 해발 4~5백미터 고지대에 올라가서 목장이나 난전, 화전에서 피나 조, 밀 등의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노래
밭기는노래	쟁기를 가지고 소나 밭을 이용하여 밭을 갈 때 부르던 노래
곰방메노래	밭을 쟁기로 갈거나 파비로 땅을 일군 후에 일어난 흘덩어리를 '곰배(곰방메)'라는 도구로 내리쳐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씨레질노래	씨레라는 농기구를 가지고 논을 고르는데, 소나 말에 씨레를 매달아 논을 돌아가게 하면서 고른다. 소에 매어 사용하여 '실메웨이꼬는소리' 라고도 함.

아이템에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페이지로
이동

파비질소리

RC0008791

(아이템 설명글)



가사보기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쟁기로 갈 수 없는 거친 때밭이나 돌밭 등을 일구기 위해서 때밭이라는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때비는 쇠와 같은 농기구이나 날이 더 뾰족하여 단단하고 거친 땅을 일구는 데 적격이었다. 때밭을 일구는 작업은 혼자서도 하지만, 주로 여러 사람(동네 일꾼)이 모여서 집단으로 하였다. 이때문에 「때비질 노래」는 선소리꾼이 누구냐에 따라 음악적 가락이나 가사 붙임새가 길게, 또는 매우 짧게 붙여지는 특징이 있다. 「때비질 노래」의 주시에는 때비질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 나눈다. 여러 사람이 때비질을 하면서 때기고 받는 경우로는 독창으로 부를 때 ‘휘’ 하는 부분을 다 같이 ‘때벼야아’ 또는 ‘이휘’ 때위의 후렴구를 사용하여 받기도 한다.

기물보기

아오리

같은
제목아이템이
있으므로

「하버드」식별표기

아이디어를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열람
페이지로 이동
(새창열기)

기록물 보기



파비질소리
(의궤리 김예)
RC00010874

RC00008614
파비질소리

RC00007319
파비질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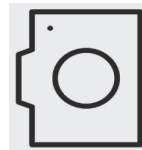
연관기록물 보기



(논문)
제주도의 놀이,
굿, 일 노래의
음악적 고찰
RC00082091



(사진)
제주사람들의
농경생활
RC00035311



(사진)
별갈기
RC00008440

아이템과 연관된 기록물 아이콘 유형별로 표시

노동요가
불려진 지영의
사진, 노동요
사진, 란 란
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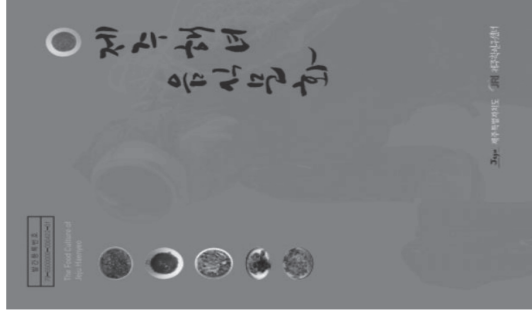
아이디어를 극대화한
해당 기록물 열람
페이지로 이동
(새창열기)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콘텐츠 개발2 -제주해녀음식
 - ✓ 2015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제주해녀어업’)
 - ✓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제주해녀문화’)
 - ✓ 201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해녀’)
 -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녀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기반 확대
 - ✓ 제주해녀음식문화는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 전복, 우뚝가사리, 톳 등을 활용한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들어 대대로 전해져 온 음식들로, 제주 해녀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한 문화
 - ✓ 2017년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한 ‘해녀의 집’ 및 해녀들의 음식문화 조사 결과 활용
 - ✓ 제주학아카이브 해녀음식문화 관련자료현황
 - 자연어 ‘해녀음식’ 검색결과 660건
 - 기술채록 음성파일 25건, 녹취록 pdf 25건
 - 해녀의 집이나 식당, 해녀음식사진 촬영본 639건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한 제주해녀 캐릭터



도내 해녀의 집 분포

(색칠설명글)

2017년 제주학연구센터는 도내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해녀의 집에서 판매되는 해녀음식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해녀의 집은 해녀들이 갓 잡은 해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다양한 음식을 파는 장소이다. 또한, 관광지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이 해녀음식을 맛보는 곳이기도 하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따는 방법, 서식지, 생태환경 등 해녀들 공동체 문화는 다양하다. 해녀들이 개발한 해산물 요리법을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전승함으로써 독특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또한 해녀음식 전수소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해녀음식의 유형과 조리법 등을 정리하고 사진 촬영 등으로 아카이브화해서 지속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부 개발이 된 '해녀음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해녀 식당 운영실태 등을 살펴 제주해녀음식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본 책은 해녀의 집을 중심으로 해녀음식문화를 이야기하고자 마련됐다.

제주한여귀센터가 지금까지 수집한 지역별 해녀 음식사진, 해당 지역 해녀들의 물결과 음식 만드는 이야기, 각 지역의 해녀들의 모습과 지역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하나씩 감상해보자!



세화해녀잡수촌	해녀올레	시흥 해녀의집
섬지 해녀의집	뿔소리 몽땅	성산리 해녀의집
성산리 해녀의집	성산리 해녀의집	성산리 해녀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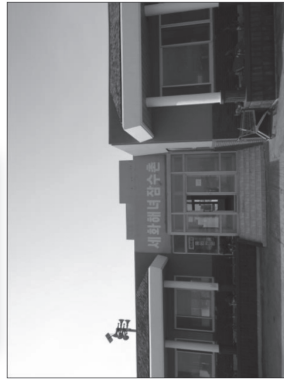
1/2

해녀의 집
분포지역을
일러스트
지도 위에
표시
표시한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

탐을
클릭하면
세부정보
개별
해녀의집
페이지로
이동
(전체항목
187개)

세화해녀잠수촌

(페이지설명글)



구좌읍 세화리 해녀잠수촌 식당은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명하다. 해녀박물관 인근 식당으로 그동안 해녀음식을 진수하거나 대내외로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특히 보팔성계 미역국은 다른 식당에서 맛볼 수 없는 담백함과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세화리 해녀 잠수촌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고영순 어촌계장의 물회는 도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관련기록물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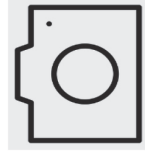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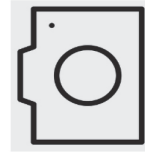
고영순 해녀
기술재록
RC00076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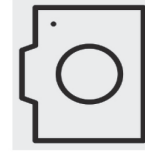
고영순 해녀
기술재록 녹취록
RC00076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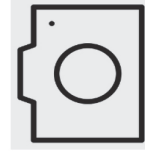
세화해녀잠수촌
고영순 해녀
RC00075443



세화해녀잠수촌
한상자림
RC00075442



세화해녀잠수촌
뚝뚝국
RC00075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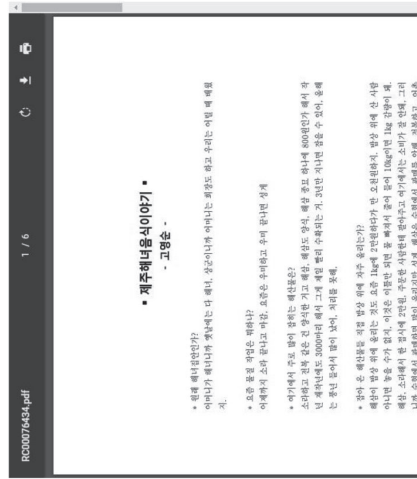
세화해녀잠수촌
우미냉채
RC00075439

아이템에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페이지로
이동

고영순 해녀



구술채록 음성파일 재생 RC00076412



(아이템 설명글)

나이: 79세 (1939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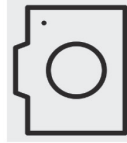
물질경력: 61년

구술채록일자 2017년 5월 6일

(구술채록 녹취록 요약)

올해로 80세인 고영순 해녀는 세화리 해녀집수춘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장이다. 열 여덟에 어머니께 물질을 배운 후 지금까지 물질경력 60년이 넘는 고 계장의 물회 맛은 동네에서도 유명하다. 소리, 잔북, 해삼 등을 활용한 요리가 많다.

연관기록물 보기



세화해녀집수춘
한상자림
RC00075442

세화해녀집수춘
꽃남국
RC00075440

세화해녀집수춘
우미양재
RC00075439

아이템에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페이지로
이동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콘텐츠 개발3 -재일제주인공덕비
 -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징병, 생계곤란, 4.3항쟁시기 피난 등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들(현재 20만 명 정도로 추산)의 고향사랑 사회공헌활동을 ‘공덕비’형태로 기록
 - ✓ 현금송금, 공공사업에 기여, 감귤산업 기여, 학교 및 교육시설 설립 등에 재일제주인들의 공헌을 기록한 비석들을 대상으로 2000년대 이후 크고 작은 지역사 조사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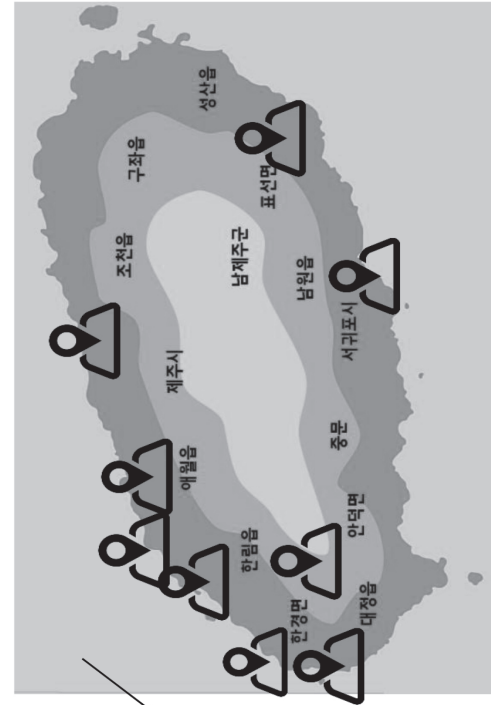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재일제주인 공덕비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마을사람들이 세운 재일제주인 비』,
2015, 재일제주인센터
(사진출처: 제주신문)

도내 재일제주인공덕비 분포

(색선선평글)



공덕비 분포지역을 일러스트 지도 위에 표시
표시한 지역을 클리핑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

맵을 클리핑하면 세부주제별 페이지로 이동

- 인프라구축
- 교육문화공헌
- 현금기부
- 부동산기부
- 현물기증

‘재일제주인’이란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를 이르는 말로,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및 징병 해방 이후 제주4.3항쟁을 기점으로 일본에 건너가 살고 있는 20만여 명 제주인들을 통칭한다. 주로 도쿄와 오사카 등에 거주하면서 간도,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재일제주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50년대 이후 가족과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사회공헌을 하였고, 이것이 제주도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일제주인들의 고향사랑을 기리기 위해 각 마을에서는 50년대부터 공덕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각 마을의 인프라 구축이 전개되던 60~70년대에 공덕비가 집중적으로 세워졌고, 이는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공덕비는 일본에서 온 재일제주인의 애향심과 그에 대한 ‘고향사람들의 감사의 징표다. 시간이 흘러 도내 개별이 가속화되면서 점차 공덕비는 물리적 멸실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본 주제색션에서는 재일제주인의 활동을 통해 제주도 현대사를 풀어볼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한다. 인프라구축, 교육문화공헌, 현금기부, 부동산기부, 현물기증 등 다양한 유형의 재일제주인 사회공헌활동을 따라가보자.

인프라구축



(페이지선행글)

재일제주인들의 고향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60~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대를 전후해 마을의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재일제주인들은 이국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리나 도로 건설, 상수도, 전하, 전기가설, 학교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마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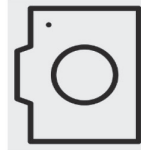
관련기록물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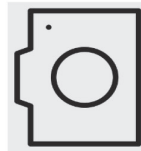
재일본 수일한수리
상수도건설 잔조원일동
공로 기념비
(1967, 제주시 한림읍)



재일교포 전기수도
설립기념비
(1973, 제주시 한림읍)



신임리전화사업 송터비
(1973, 제주시 에월읍)



김기선 공로비
(1968, 제주시 한림면,
마을 방송시설 가설)

아이템에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페이지로
이동

공덕비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비석
사진보기

수원 한수리 상수도건설 찬조원일동 공로 기념비



(아이템설명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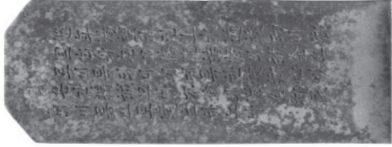
설립년도: 1967년 6월
주소: 제주시 한림읍 수원9길2

마을수도 가설에 상금을 회사한 재일교포를 기념하여
수원리 마을 주민들이 세운 비이다.



비석에
기재된
텍스트를
요약해
메타데이터
작성
구글지도
활용해
위치정보
입력

비석 텍스트 읽기



"오랜 기간 갈망하던 상수도
준공이 향리출신 재일교포
재현의 성금으로 이룩되니
이 기록한에 함심에 온갖
정성을 모아 불멸의 탑을 건
함인의 이름으로 건립하노라"

연관기록물 보기



(공공기록물)
통째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013
RC00084720



(공공기록물)
숫자로 알아보는
제주 이야기
RC00084929



(대한뉴스영상)
김원철 내각수반
제주도 시찰
제주도 상수도
공사 완공
RC00004527

제주학아카이브
연관기록물
연계하여
맥락정보
제공
60년대
제주도
상수도건설
중요성과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콘텐츠 개발4 -제주시 원도심 일대 표지석

- ✓ 2017 인문활동가 사업 가운데 ‘우리는 표지석 탐험가’ 활동기록 활용
- ✓ 인문활동가의 활동과 제주학아카이브 지역인문자원 수집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

✓ '우리는 표지석 탐험가'

- 제주도 출신 지리학 전공자이자 문화기획자, 인문활동가 고** 씨가 기획하고 진행
- 제주 원도심에 위치한 표지석들을 노인세대와 어린이들이 찾아서 그림으로 기록하는 활동
- 표지석: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모습이나 건물 등에 기록해놓은 돌 (예/ *** 터)
- 탐방지역: 제주시 원도심 삼도2동, 일도1동 일대
- 프로그램 구성 : 8주 구성 (답사 4주, 지도만들기 이틀리에 4주)
-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4학년 이상 8명과 4주에 걸쳐 진행.
- 각 회차에 13개 표지석 탐방



기록물 산출 예상량

제주시 원도심 일대 소개 52개 표지석에 대한 사진 각 3점 (약 150여 점)

프로그램 참가자 제출그림 272점, 지도콘텐츠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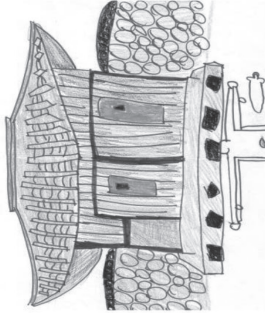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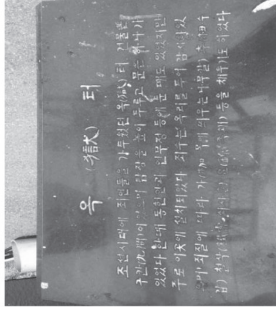
연구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온라인콘텐츠 개발4 -제주시 원도십 일대 표지석

✓ '우리는 표지석 탐험가' 커리큘럼에 의한 산출물 유형

커리큘럼

회차	활동 내용
1-4	[원도십 지역 표지석 답사] - 제주시청앞 일대, 중앙시장 일대, 신지천 일대, 동문시장 일대의 4회차로 나누어 답사를 진행. - 답사 중에 만나는 표지석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누기.
5-8	[표지석 지도 만들기] - 4회차로 진행한 일대의 표지석을 지도에 표시해보고, 중요한 표지석은 작은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보기. 8회 과정과 관련된 곳은 기와건물로, 유배터는 초가집으로 작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 표지석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도를 만들어보기.



(위) 기록유형 1. 옥 터 표지석 사진
(아래) 기록유형 2. 옥 터를 탐방한 어린이들의 그림 (종이&스캔본)



어린이들의 그림들을 구글 지도위에 구현한
디지털데이터세트 (온라인 공개)



제주시 원도심 표지석



표지석
분포지역을
일리스트
지도 위에
표시

표시한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

탭을
클릭하면
세부주제별
페이지로
이동

관청

유배지

교육

제주읍성

종교

생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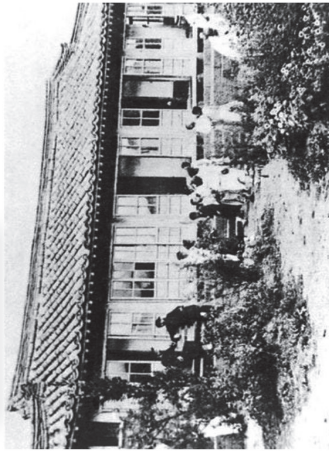
(색선별명)

오랜 세월이 걸쳐 제주 도시는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기억하기 위해 '표지석' 을 세웠다.
표지석이란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모습이나 건물 등을
기록해 놓은 돌로, 도시에 새로 건물이 세워지거나 공
공사업 등으로 물리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예전에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세운 경우가 많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월까지,
'우리는 표지석 탐험가'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은
심도2동, 일도1동 일대 곳곳에 숨은
표지석을 찾았다.
표지석의 내용을 함께 읽고 우리 동네의 옛 모습을
함께 상상해보았다.
그리고 그 상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렸다.
이 그림에 위치정보를 담아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다.

이 주제 색선에서는 2017년 제주시에 사는 어린이들이
기억하는 제주의 옛 모습을
함께 돌려보는 온라인콘텐츠를 함께 살펴보자.

교육



(배이지설명글)

원도신 표지석 중에서는 교육 관련 표지석이 가장 눈에 띈다. 제주향교, 최초의 초등학교, 최초의 여학교 등 역사 속에서 지역 인재를 키워 온 교육 거점들이다. 시대를 불문학교 학교의 설립은 부국양성과도 깊이 연결되었다. 특히 20세기 초반 설립된 근대학교들은 서구 문물을 비롯한 세기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나갈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온 곳이기도 하다.

옛 학교가 있던 도시 곳곳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있을까?
2017년의 제주 어린이들은 옛 학교를 보고 무엇을 상상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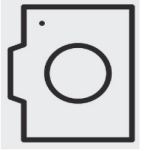
관련기록물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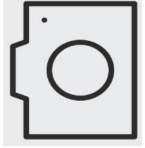
사마재(司馬齋)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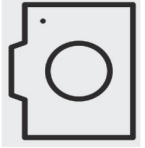
삼천서당(三泉書堂) 터



제주향교 창건 지



최초의 여학교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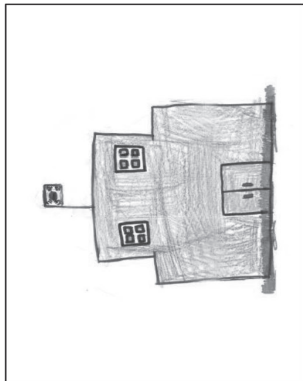
최초의 중학교 터



최초의 학교 터

아이템에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
열람페이지로
이동
어린이
그림이 1차
관련기록물

최초의 학교 터



(아이템설명글)

생산자: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 조하연

생산일시: 2017년 11월

주소: 제주시 삼도2동 3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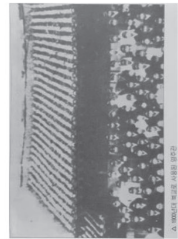
근대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최초의 학교터.
1907년 윤원구(尹元求) 군수는 이곳 객사대청 터에
제주공립보통학교(지금 4년제)를 창설하였으며, 아울러
중등교육과정(1년제)인 의신학교(義信學校)도 창설하였다.
의신학교는 얼마 뒤 굴림서원 터로 옮겨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보통학교는 그 뒤에도 꾸준히 정착하여 지금의
제주북초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연관기록물 보기



(사진)
최초의 학교 터
표지석 사진



(사진)
1900년대 북교
건물로 사용된
영주관

표지석 사진,
탐방프로그램에
활용된
교육자료 등을
연관기록물로
수집



(사진)
1960년대
제주 지역 초등학교 졸업식
RC00008386



(사진)
1980년대
제주 지역 초등학교 견학
RC00008135



학교가 떠난 우리 고장 이야기 -
제주시 III 동(洞)지역
RC00003265

제주학아카이브에
수집된
연관기록물과도
연계

표지석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그림이
주요기록물

구글지도
활용해
위치정보
입력

기대효과

< 연도별 실천계획 >

연도	추진 목표	실천계획	비고
<제주의 정체성 문화 창달 사업>			
2018년	· 제주해설팀의 재단법인 전환	· 타당성 조사, 행정부, 제주도 심의 통과	
2019년	· 제주해연구재단 설립, 운영	· 인력 예산 확보	
	· 탐라자료관 설립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용역 시행	
2020년	· 탐라자료관 설립 운영	· 자료관 건물 매입, 인력 확보	
<새 주민 이주정책에 따른 지역문화 상생 사업>			
2019년	· 해안마을 12곳 작업	· 공동사업팀 구성, 운영	
2020년	· 중산간마을 12곳 작업	· 공동사업팀 운영	
2021년	· 성마을, 산간마을 12곳 작업	· 종합보고서 제출	
<마라도공동육상 및 공동어장 전수조사>			
2019년	· 제주도 북동부 목장·어장 조사	· 조사연구팀 구성, 운영	
2020년	· 제주도 북서부 목장·어장 조사	· 조사연구팀 운영	
2021년	· 제주도 남동부 목장·어장 조사	· 조사연구팀 운영	
2022년	· 제주도 남서부 목장·어장 조사	· 종합보고서 제출	
<탐라문화권의 지속적 조사 연구 환경 조성>			
2018년	· 탐라문화권 세부계획 마련	· 탐라문화권 세부계획 확정	
		· 국토부 및 문화재청 제출	
2019년	· 고대역사문화권 제도적 기반마련	· 탐라문화권진흥조례(안)마련	
		· 연구과제 로드맵 확정	
		· 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	
		· 동아시아 지역 포럼 개최	
2020년	· 탐라문화권 조사연구 본격	· 전문연구기관 발족	
		· 국제학술회의 개최	
2021년	· 탐라문화권 조사연구 본격	· 일반인 연구사업 지원	
2022년	· 탐라문화권 진흥사업 지속추진	· 전문연구기관 중심 조사연구	

- 제주학아카이브 소장 3만 점 수집 자원으로서 수집량을 10만 점 이상 증량 방안 마련
- 도내에 산재한 지역문화자원 소장처를 발굴하고 공동체참여형 수집매뉴얼 제작
- 공공 / 민간 영역 기관,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제주도 문화자원통합서비스 채널마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공공기록물법 제11조, (가칭)탐라자료관)에 앞서 제주지역 기록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
제주가 커지는 꿈 : 민선7기공약실천계획서 p477
"제주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 탐라자료관 설립계획 (2018~2022)
- 시민을 위한 제주역사문화 관련 자료 소장, 열람, 전시, 정보제공 등 종합자료관 역할 수행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술자료관으로서의 가능성과 과제

염 미 경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술자료관으로서의 가능성과 과제

염미경(제주대학교)

<목 차>

1. 제주학 아카이브와 구술 아카이브
2. 구술 아카이브 관점에서 본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주소
3. 제주학 아카이브의 구술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제

1. 제주학 아카이브와 구술 아카이브

◆ ‘아카이브’란?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에 준하는 적합한 기준에 따라 기록이 갖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여 평가과정을 거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기록물을 아카이브 내에서 보존, 활용하는 곳”

⇒ 특히 지역 아카이브의 역할은 지역 기록의 단순한 수집 및 축적, 단편적인 활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전반을 기록하고,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체제 하에서 기록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시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여 기여한다는 점에서 단순 자료 보관소/정보 집적소와는 다른 의미와 사명을 갖고 있음.

⇒ 이때 다양한 종류의 구술기록은 지역 기록물의 수집과 지역 아카이브 활성화에 있어 그 폭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데 콘텐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최근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구술기록의 양적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통합적 구술아카이브 구축과 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구술기록은 근현대 관련 기록 및 문헌의 부재, 자료의 진부성에서 오는 공백을 메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고 기록학적 측면에서도 다원적이면서도 복합한 기록을 둘러싼 보다 권원적인 맥락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이를 통해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매개물로 작용하는 의의를 갖고 있어 다양한 기록보존소 차원에서 구술기록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술기록에 대하여 기록학적 관점에서 수집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아카이브 차원의 수집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 근현대사, 특히 지방근현대사에서 구술자료 아카이브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근현대사 관련 우리 자료와 지역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더욱이 학문에서 실증주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우리의 경우 한국의 근현대 전반의 연구와 자료 수집에서 개개인의 기억들은 상당 부분 제외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다행스럽게 2000년대 들어와 구술사와 구술기록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전반의 폭넓은 소통은 다양한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켰고 그 방법론 또한 다양해졌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개개인을 구술사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현대 지역사 자료에서 구술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구술사는 역사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보다 많은 구술기록의 확보와 폭넓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 지역 구술기록과 구술 아카이브, 구술자료관

“지역 구술기록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던 지역 기록화와는 다르게, 특정 범위의 영역 내에 있는 개인의 경험, 공동체의 활동, 지역의 역사 등 지역민의 경험과 기억을 지역민의 입장에서 말로 기록한 것!”

⇒ 개인의 자서전, 공동체 생활사, 기성세대의 기록, 토착어(제주어), 지역명칭의 기원 혹은 지역운동가의 생애사, 지역민의 역사적 경험(제주4.3, 전쟁경험, 새마을운동 등), 이주민의 생애사, 민속, 해녀 등 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으며,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독자적인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음.

⇒ 지역구술기록은 지역민의 기억과 증언에 근거해 지역과 마을의 생성과정을 밝히고 그 속에서 어떤 경험과 감정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어 지역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으며, 지역민의 언어로 발굴된 지역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원!

◆ 2000년대 이후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무엇을 왜 기록하는지, 혹은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누가 기록하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음. 나아가 이러한 물음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음. 이러한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카이브의 논의임.

◆ 지역구술기록의 특성은 무엇인가?

- 1) 지역 연구의 주요한 자료원: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문헌자료가 거의 없고 남아있는 자료마저 기관의 입장에서 서술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이 말로 전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 기억을 담은 유일하고도 중요한 자료가 됨.
- 2) 지역구술기록은 생산과 활용에서 주로 지역민이 주체: 지역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삶이 기록됨으로써 지역민들은 역사서술의 주체가 되며, 지역 구술기록은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단체나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직접 생산하고 활용
- 3) 지역구술의 주요 내용은 생활사: 지역의 역사, 경제, 문화, 사회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개인의 생활사에 기반해 자료가 수집됨.

◆ 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필요성

- 1) 지역 구술기록은 향후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 하며, 지역 구술기록은 각 기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에 의해 생산되지만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
- 2) 신뢰성을 갖춘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지역 구술기록은 구술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차 자료와 함께 구술이 생산된 맥락을 보여준 구술정보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가 지역 구술기록의 평가기준이 됨.
⇒ 이러한 맥락 확보가 구술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학아카이브에 들어가 있는 구술(음성) 정보와 사진과 동영상자료는 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 3) 구술기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윤리적 자료 생산이 필요하다. 구술은 한 개인의 삶의 체험과 감정 등을 말로 풀어낸 것이므로 어떤 자료보다도 활용과정에서 까다로운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 4) 지역 구술기록은 지역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구술기록의 특성 중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 지역 연구자나 지역민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지역 구술기록의 특성에 맞게 기록을 관리하고 서비스할 구술 아카이브 또는 관리 주체에 대한 연구나 활동이 필요함.

◆ 구술기록의 일반적 특성

“‘기억의 기록화’라는 점에서 주로 생산과 활용과정에서의 민감성과 연관되어 있음.”

⇒ 구술기록에서는 “구술사 연구방법론에 대한 인식과 관점, 지역 구술기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함.”

⇒ 구술기록은 일반적인 수집물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과 수집방식을 갖고 있음.

⇒ 구전은 문화의 역동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입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고, 전달되는 과거로부터 온 이야기이자 유산이다. 반면 구술사는 보통 가까운 과거의 직접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억에 대한 학문적 조사과정'(Moss 외, 1991: 150).

⇒ 구술기록은 일반적인 수집물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과 그 수집방식을 갖고 있다. 구술기록이 일반적인 기록물과는 다른 수집방식 및 전략은 그 특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수집정책이 필요하다.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술자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기 생산된 구술기록이 제대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법적·윤리적 서류를 갖춰야 하며, 이것을 온전하게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활용에 대한 자체 평가와 수집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2. 구술 아카이브 관점에서 본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주소

◆ 현재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학 유형별 정보 하에 구술(음성)이라는 정보 하에 수록되고 있고 본연구의 부산물, 1차자료는 구술(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하위 분류체계마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실제 구술기록이라 할 때는 1차 자료(녹음·음성자료-녹취문, 녹화·동영상자료, 사진자료의 통합적 구축)라기 보기 어렵고 법적·윤리적 서류가 없는 구술(음성)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구술자료의 신뢰성과 구술자료의 해석에서 중요한 생산 맥락마저 알 수 없음.

⇒ 현재 제주학아카이브에서 구술자료는 유형별 분류에서 구술(음성)로 분류되어 있고 민속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구술이 존재한다. 하지만 구술기록 생산 유형이 사업목적과 면담자에 따라 다르고 구술기록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할 1차 자료(음성자료, 영상자료)와 법적·윤리적 서류(구술 내용 관련 모든 유형의 구술정보자료와 구술동의서 및 구술공개와 활용동의서, 검독확인서, 비공개내역서 등) 등이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았다. 지역구술 기록을 지역아카이브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산과 관리·활용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술자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 제주아카이브의 유형별 분류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술자료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구술기록이 녹취문의 형식으로 텍스트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술성 파괴현상과 이로 인한 활용의 유동성, 그리고 구술기록이 인간의 기억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험담과 주변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활용의 ‘민감성’ 역시 기록화와 활용 단계에서 기관과 구술자를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존소 차원의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 현재 제주학아카이브는 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구술기록은 일반적인 기록물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수집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집정책과 수집 절차가 전제되어야 제주학 아카이브가 구술자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 ⇒ 현재의 제주학아카이브는 구술(음성), 사진, 동영상이 자료의 유형별 분류 기준이 되고 있지만 구술자료관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많음. 오히려 2019년도 제주학연구센터의 공기관대행사업(예를 들어 제주마을기록화사업, 문화상생사업, 마을공동목장/어장 전수조사사업, 제주어 채록사업자료 발간 및 보급사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활동 연구사업, 해녀안전사고 예방 기초기술연구, 해녀어업유산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해녀사전 편찬, 일제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조사사업 등)과 연구사업(기본과제연구, 제주학지원사업, 제주어연구사업 등)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 예를 들어 제주마을기록화사업이나 문화상생사업을 구술사방법론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물을 생산해내면서 그것을 제주학아카이브에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활용하는 것임.

3. 제주학 아카이브의 구술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제

Q. 제주학아카이브가 지역 구술자료 수집과 정리과 보존 및 활용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술자료관의 기능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음.

- 1) 구술아카이브는 왜 존재하는가(제주학아카이브는 왜 만들어졌는가?)
- 2) 구술아카이브는 어떤 집단, 활동, 그리고 경험을 기록하는가?
- 3) 구술아카이브는 어떤 기록을 수집하는가?
- 4) 구술아카이브는 어떤 집단과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가(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 5) 구술아카이브는 어느 기관 산하인가?

◆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술자료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구술기록 수집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술자료의 수집범위를 결정하고 수집해야 할 자료의 주제와 형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수집정책은 기관의 효과적인 소장물 개발과 활용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사명에 부합하는 기록을 입수하여 조직적으로 수집물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수집정책은 수집될 기록의 유형이나 가치, 활용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수립되어야 함.

◆ 제주학 아카이브가 구술자료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야 함.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제주학아카이브’를 표방해야 하며 기록전문가, 다양한 공동체들의 기록방식을 아키비스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지역학과 기록학적 접근이 융합되어야 함. 다행스럽게 최근 공동체아카이브 논의가 시작되었음.

⇒ 지역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자료’라기 보다는 유무형의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자료 자체보다는 대상자의 삶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국면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에 들어간 외부자로서의 연구자는 당신 삶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자료확보와 보존에 나섰다는 관점을 갖춰야 함.

◆ 제주학아카이브가 구술 아카이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 수집기록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해서도 공개 및 이용조건의 세분화가 필요함. 구술기록은 내용상 민감한 사항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술자는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칫 중요 사안에 대하여 구술거부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고 구술기록의 공개제한 및 이용조건과 관련된 제약 사항이 기록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은 일반적인 아카이브 정책과는 다른 구술기록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는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와도 직결됨. ⇒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있음.

⇒ 따라서 구술아카이브는 구술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활용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만 구술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현재 제주학아카이브에 탑재된 구술(음성)은 이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음.

⇒ 구술아카이브에서는 구술기록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동적이고 현실적인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하고 이를 구술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개 및 활용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구술자료의 공개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공개, 특정 내용이 포함된 구술부분만을 제외한 부분공개, 비공개 등의 설정이 현실적이며 추후 가공을 통하여 2차 자료로 재생산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고 정책상에 명시하여야 함.

⇒ 또한 구술내용이 구술자 본인만 아니라 구술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구술자 사후에도 대리인을 통한 공개 권리의 승계 여부도 고려하여야 함.

⇒ 나아가 ‘디지털 아카이빙’과 이를 통한 서비스 방안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이용자 개개인의 접근권한과 활용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기록의 무분별한 오용으로부터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이와 함께 구술자료 수집개발을 위한 지침(수집교육프로그램, 수집정책 평가체제의 체계화)도 마련되어야 함.

◆ 구술아카이브에서는 제주학 관련 음향과 영상자료들을 모아 문헌아카이브와 연계된 시청각아카이브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학 정립이라는 학술적 목적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문화관광 진흥의 목적에서도 필요하다.

⇒ 음향·영상자료는 시대상과 문화를 시각과 청각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문화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을 복원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데 있어 매우 훌륭한 자료이다. 음향·영상자료 자체가 문화유산이므로 그 보존을 위해 그것들을 수집,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 음향·영상자료는 태부족인데다 분야별로 그 양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분산 소장되어 있어 접근과 이용에서 불편하다. 자료의 분산 문제를 수집을 통해, 자료의 부족의 문제는 신규제작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특히 기초자료가 없는 연구대상의 시청각 자료를 새롭게 제작하는 일은 이 대상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 변형되거나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이러한 자료의 제작은 기초자료가 가장 부족한 분야부터 이루어져야 하지만 투입될 자본과 인력을 고려하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제작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명확한 분류체계와 기준을 마련하여 분야를 구별하고 그 분야내에서 제주를 대표할만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구술자료관의 구축 목적은 지역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복원과 그 정체성 형성에

있다.

⇒ 따라서 현재 사라져가고 있거나 이미 사라진 지방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그 유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며 문화의 보급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원래의 아카이브 구축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음향자료, 동영상자료, 사진자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 아카이브의 구축에서 자료들의 보존, 정리, 구성의 문제가 항시 활용의 문제에 앞서 고민되어야 한다. 아카이브가 이를 토대로 제주문화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 문화에 관한 파편화된 정보들만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원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학 시청각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제주학 연구자들의 참여와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준비가 요구된다.

◆ 구술사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녹음기술의 발달, 나아가 녹화기술의 발달이 있었다. 더욱이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텍스트와 음성, 영상을 모두 하나의 매체에 통합해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디지털도구들은 생애사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말하는 방식을 재형성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법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 이런 기술 발전과정 속에서 녹취문은 구술사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초기부터 변함없이 구술사연구의 주요한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차지하고 있다.

⇒ 구술기록을 구술녹화, 구술녹음, 구술녹취자료로 구분하여 녹취문을 녹음기록과 영상기록과 같은 원자료의 일종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녹취문은 구술사연구과정에서의 성과물이고 연구자의 해석이 담긴 것.

◆ 디지털시대 제주학 구술자료관의 위상과 과제

⇒ 디지털기술과 구술기록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새로운 정보환경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술자의 관점과 내러티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녹취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술기록을 손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왕 구술사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라면!

⇒ 구술기록의 체계적인 보관과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서의 아카이브의

약진과 강화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돌려야 하는 구술사의 또 다른 출발 지점이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식론적 투쟁의 시작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구술기록을 활용한 역사의 복원이며 민주화이다. 디지털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임을 구술사 연구자로서 기대해 본다.

- ◆ 이와 관련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도 하나의 방안이다. 관리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구술기록을 관리하더라도 구술기록의 유형 및 특성 상 통합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통합관리는 원자료를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술기록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매개 역할까지 포함한다. 지역차원의 구술기록 관리기관 주체의 조건으로는 조사연구 기능을 갖추고 영구보존시설 및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활용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제주학연구센터는 그것이 가능한가? 따라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 지역 구술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에서 우선 지역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미래에 지역 구술기록이 활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체계적인 생산, 관리의 1차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지역 구술연구자, 지역 및 지역사 또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다.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미래의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할 구술기록 범위를 협의하고 1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단체나 공동체가 의미 있는 기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증가할 구술사업에서 기관간의 내용적 중복을 피하고 연구주제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록취합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술사업과 구술기록의 목록, 내용, 소장처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목록 취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 지역구술기록은 지역이 자기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인문사회적 자산이 됨과 동시에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을 건

강하게 발전시키는 기능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술기록 생산 유형이 사업목적과 면담자에 따라 다르고 구술기록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일회성 사업으로 단행본과 같은 가공된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구술기록 원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 등 문제가 있다.

⇒ 제주학연구센터가 발주하는 지원사업들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 연구』(2015,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 24)는 하나의 예를 들 것이다. 이 연구서는 단행본 이외에 제주도 옹기장들과 생존 기능인들에 대한 구술생애사자료(1차자료로서 음성과 영상자료(사진과 녹화자료), 법적·윤리적 서류와 같은 2차 자료, 그리고 녹취문까지를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수집사업의 틀에 맞춰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음)].

⇒ 이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가 미래에 지역 구술기록이 활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체계적인 생산, 관리의 1차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지역 구술연구자, 지역 및 지역사 또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고 추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지역 구술기록이 연구자료로써 가치있게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해 구술기록이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사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1차 자료)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단체와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주학연구센터가 주도하여 생산해야 한다.

◆ 아카이브 계획은 그림의 떡이 되는데, 비용문제가 있어 물리적으로 통합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 구술조사자나 아키비스트들이 나오긴 했지만 많은 구술조사들은 구술조사 훈련이 미처 되지 못한 조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최근 몇 년간 수행하고 있는 구술사 기초 및 전문 교육사업은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흩어져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수행했던 구술사 자료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도 시급하다. 물리적으로는 어렵더라도 각 기관이나 단체, 연구팀이 생산한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모아서 일괄 공개하고 공유하는 사이버상의 공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출판부에서 나온 한국여성인물사 1, 2(2004, 2008) 중 1권에서 제주해녀 고이화 등 제주인물 구술자료가 이미 생산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명훈(2013), “디지털 구술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4(1): 7-39.
- 배은희(2018),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85-108.
- 이호신(2017), “구술사 연구와 기록관리, 녹취문을 넘어서,” 『구술사연구』, 8(2), 97-129
- 조용성(2010),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 최정은(2017), “공동체에게 다가가기: 공동체아카이브, 복수의 주체의 가능성,” 『구술사연구』, 8(1): 59-91.
- William W. Moss, James Gregory(ed.), 1991.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그 외 본 발표자의 연구서.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

- SW/HW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강 진 욱

(주)제머나이소프트 이사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

- SW/HW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주)제머나이소프트 강진욱
jay@gemiso.com / 010-9061-8408

01

2

3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요



디지털 자산 관리

• DAM(Digital Asset Management)

- Digital asset management (DAM) is a business process for organizing, storing and retrieving rich media and managing digital rights and permissions. Rich media assets include photos, music, videos, animations, podcasts and other multimedia content.(출처 Whatis.com)
- 디지털 자산 관리란 리치 미디어의 정리, 저장, 복구와 이들의 디지털 권리, 권한을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이다. 리치 미디어 자산은 사진, 음악, 비디오, 애니메이션, 팟캐스트를 포함한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다.

참고

MAM, CMS, DAM 모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MAM은 방송 혹은 영상 업계에서 영상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에 주로 이용되고, CMS는 콘텐츠 관리라고 하여 일반적인 명칭으로 좀더 활용된다. 최근에는 DAM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DAM 명칭을 꺼낸 이유는 지역학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스템 명칭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이며, 근래의 용어로는 CMS가 좀더 흔한 용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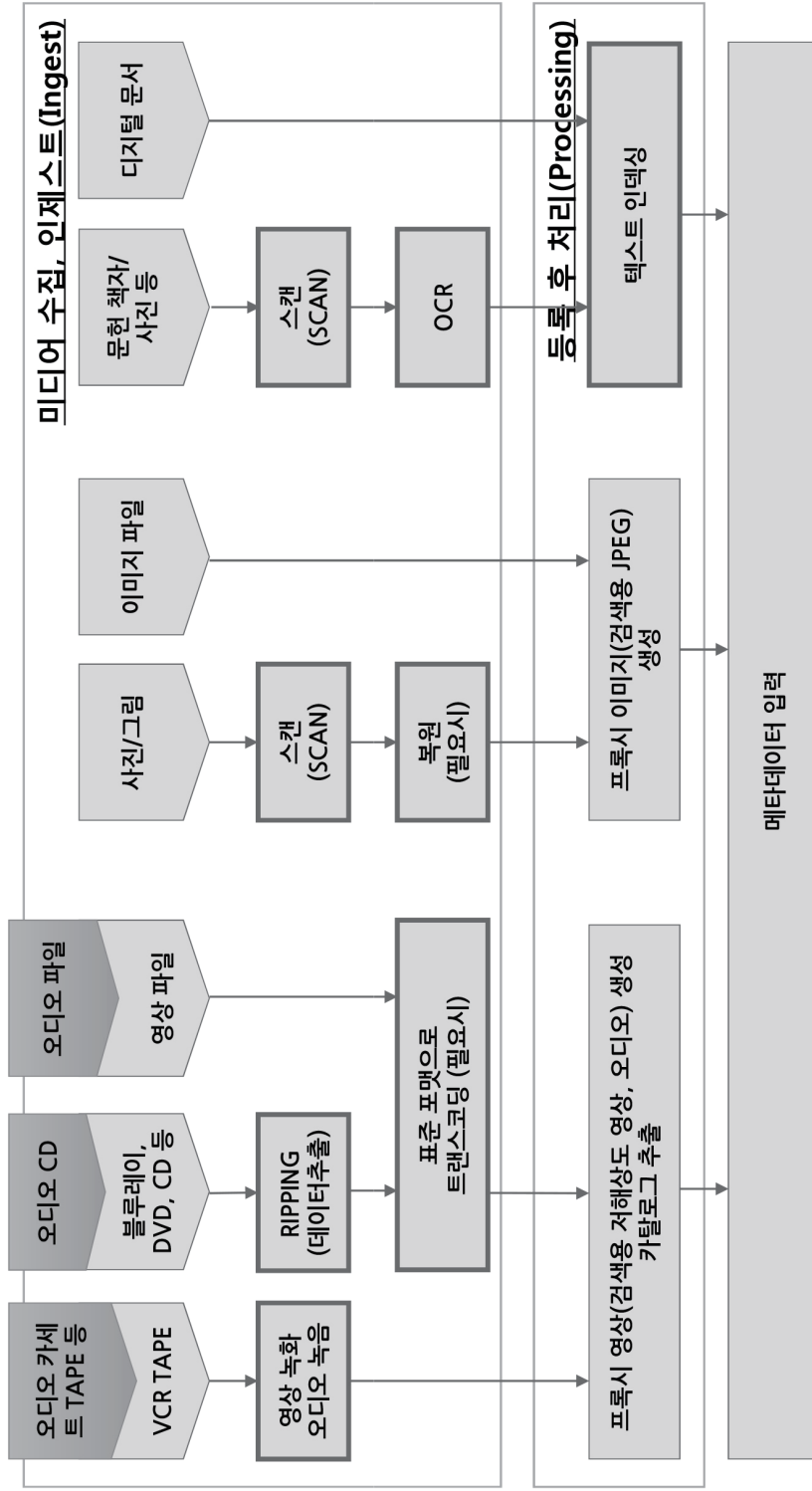
유형별 아카이브 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브 자산은 동영상(Video), 사진/그림(Image), 오디오(Audio), 문서(Document)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원본(혹은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아카이브에 등록하고 저장, 관리, 검색,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에 맞는 등록 후 처리(Post Processing)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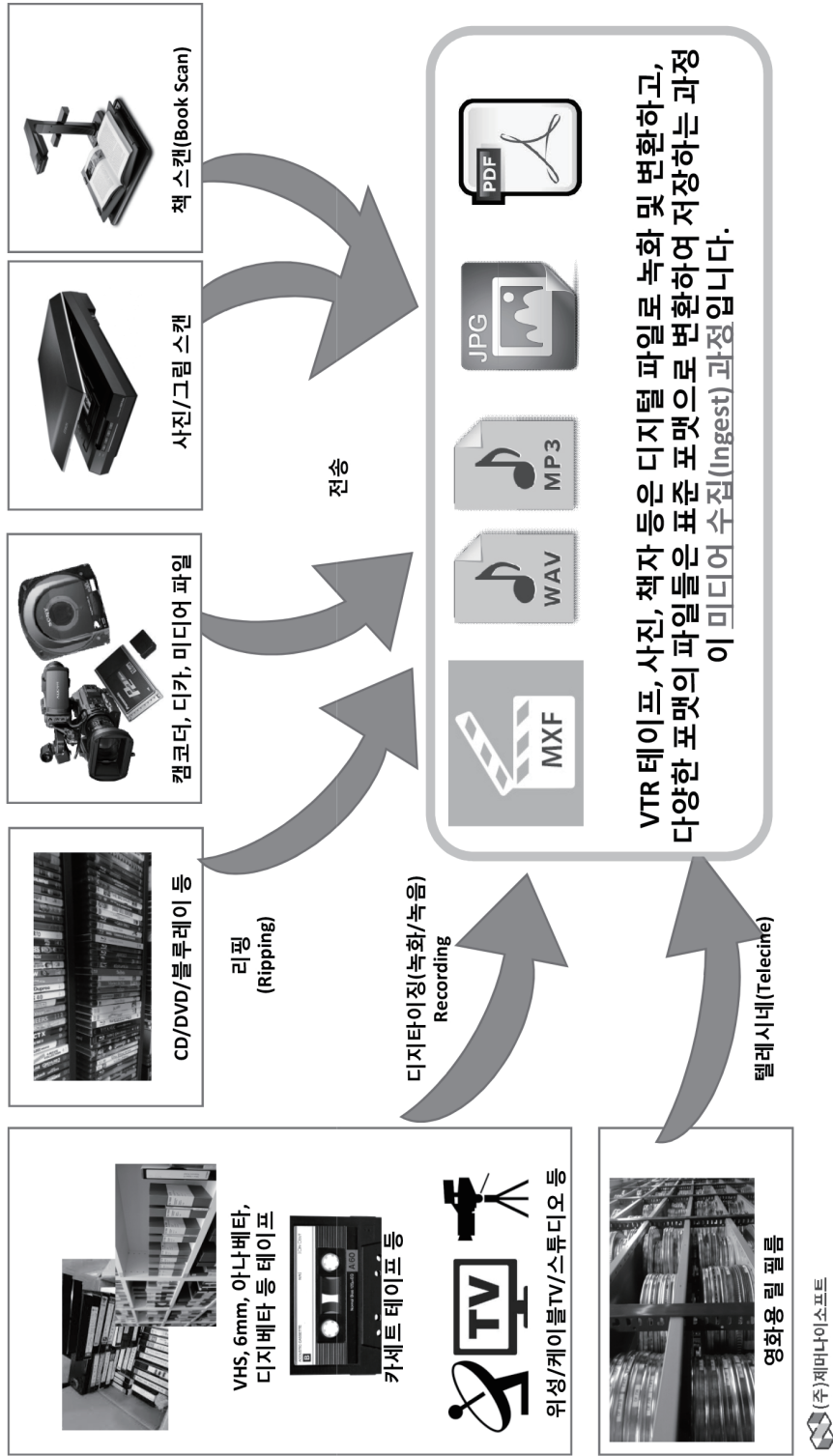
** 유형 구분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참조

아카이브 데이터 입수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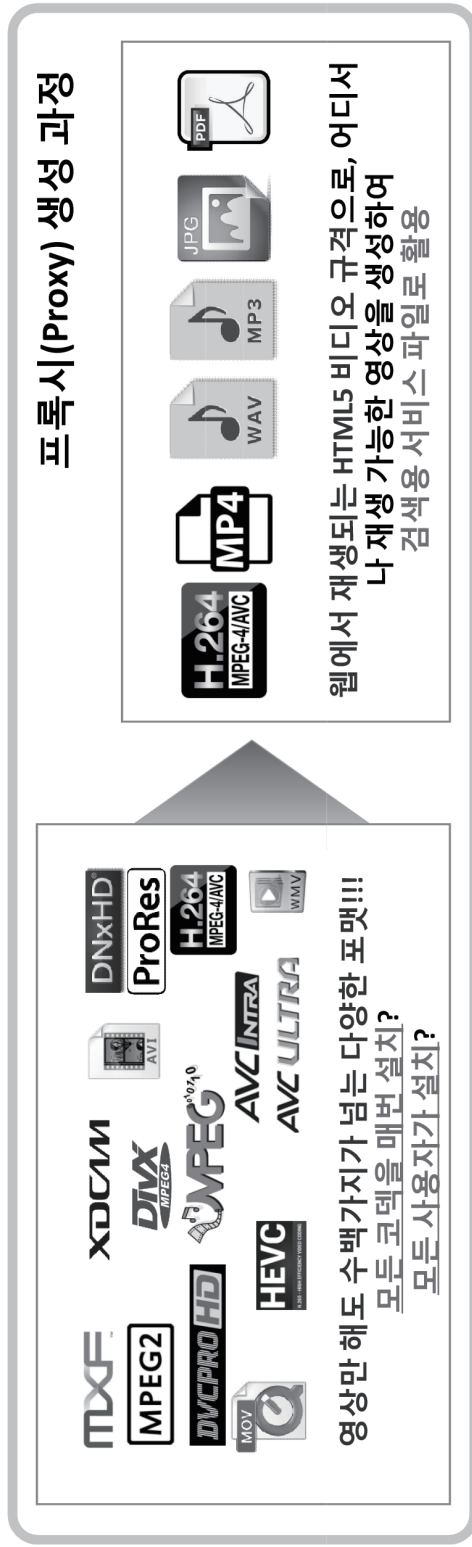




미디어 수집(인제스트, Ingest)



검색용 영상, 이미지, 오디오(Proxy) 생성



미디어 관리 시스템에서 프로ksi 파일이란 저장용량 서비스용 대체 파일을 의미하며,
고해상도에 다양한 코덱으로 만들어져있는 원본 파일을 대신해
사용자들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저용량/저해상도/고압축 미디어 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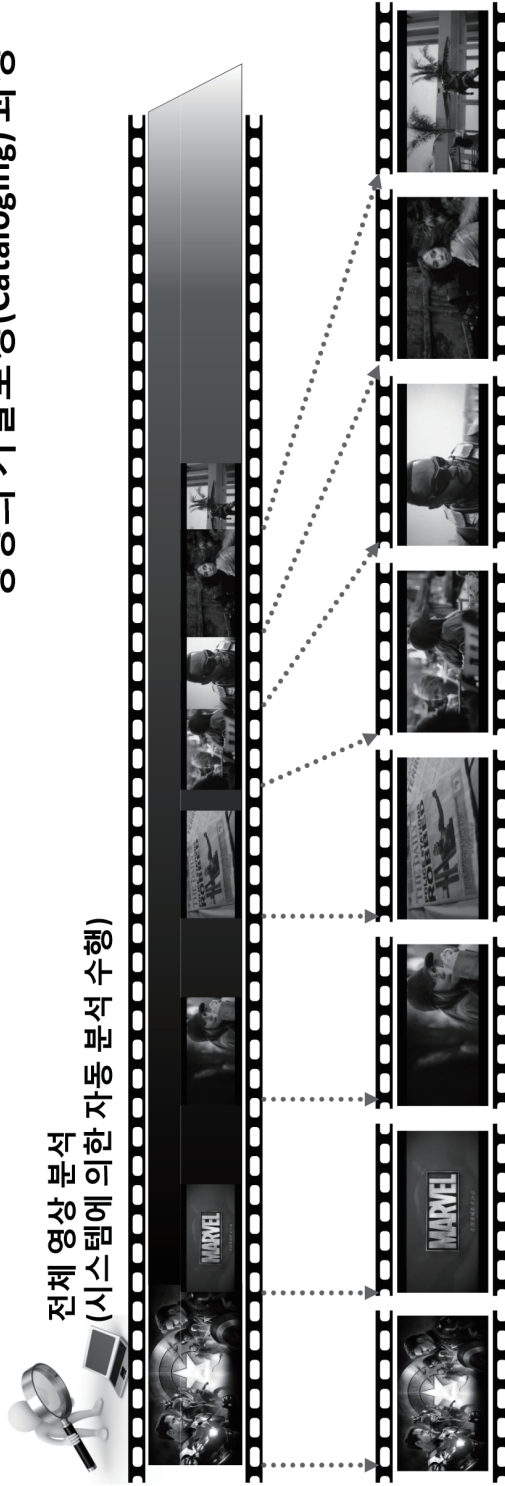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트랜스코더(Transcoder)라는
시스템이 생성



카탈로킹(Cataloging) 및 인덱싱(Indexing)

1시간 길이를 가진 영상에는 작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수천 개의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필요한 구간을 잘 찾도록 영상을 분석하여 장면 별로 나누어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영상 Catalog 과정이며, 책자, 문서 등의 경우 텍스트를 추출하여 검색어 만들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인덱싱(indexing) 과정이라고 함.

영상의 카탈로킹(Cataloging) 과정



분석된 장면 전환 지점을 바탕으로 논리적 구간 생성: 사용자들은 구간별로 메타데이터 입력/검색/활용이 가능



검색 및 메타데이터 작업

영상과 미디어가 등록만 되어 있어서는 이후에 검색도 힘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혹은 시스템이 미디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위치, 출연자, 시간 등 다양한 정보들이 미디어 외의 데이터로 입력될 수 있다.



미디어 자체만으로는 검색할 내용이 부족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향후 검색/재사용에 활용
메타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아카이브(Archive)

디지털화된 미디어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화질의 열화도 없고, 복제도 쉬워 데이터는 보관이 쉬울 것 같지만, 그 크기와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디지털 파일의 휘발성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이 따로 마련되고 있다.

1시간 용량		1년치 용량(10,000시간 기준)
HD	25GB~30GB	250TB ~ 300TB
4K UHD	250~300GB	2.5PB ~ 3PB

일반 RAID 스토리지, 하드디스크로
감당하기 어려운 용량

유지 비용 비교: 디스크 vs 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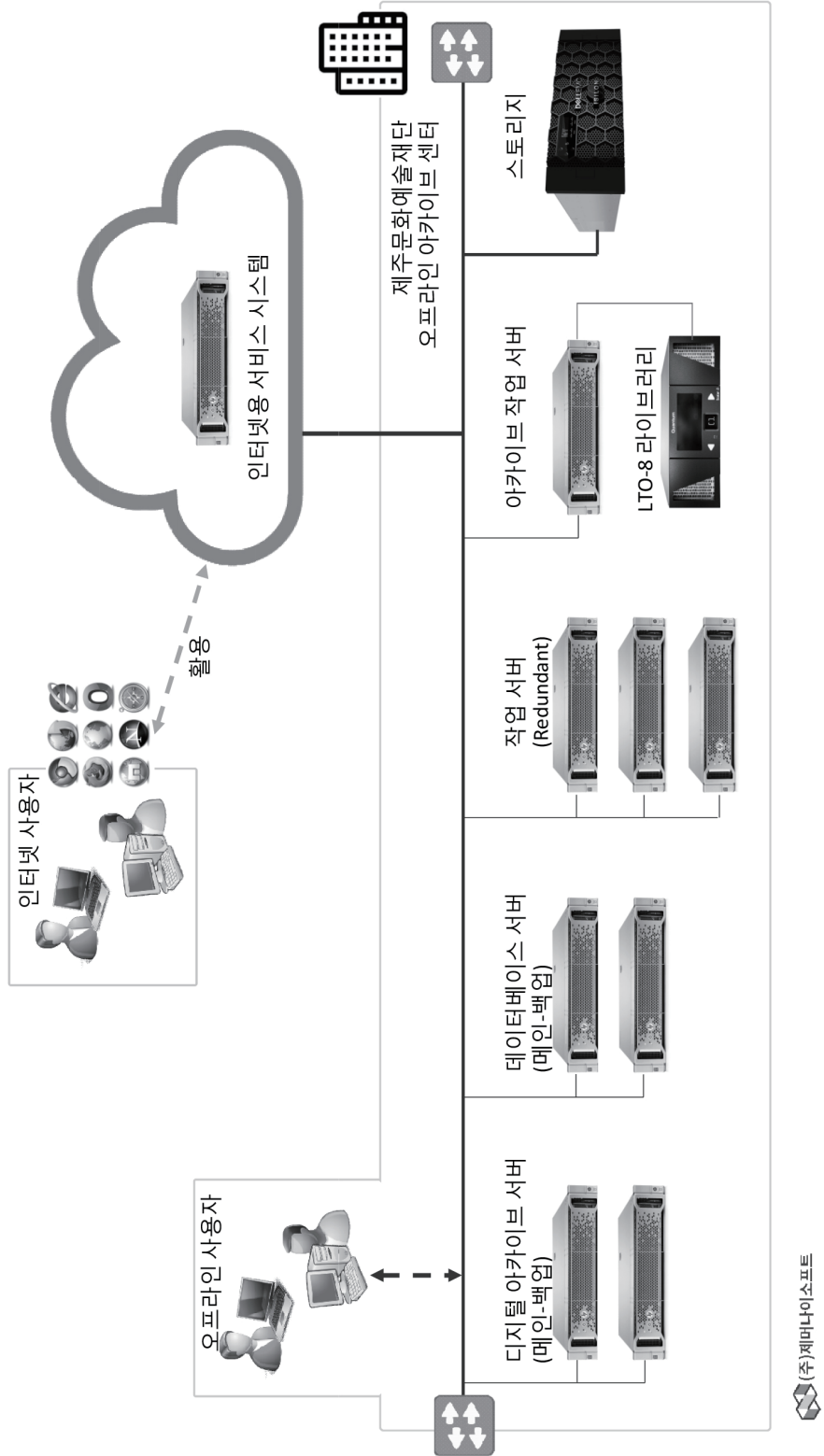
	3PB RAID	LTO7	비고
TCO (총소유비용)	10억원~수십억	3~5억원	
유지비용	수억원 (2TB, 7200 rpm HDD 경우 3억+)	수천만원	전기, 부품 교체 등 포함

시스템 파손 시, RAID는 전체 저장 데이터 소실되는 반면, 테이프는
해당 테이프만 소실

아카이브 구축 전략

소규모 시스템에서는 디스크
기반의 RAID 스토리지로 구축
하는 것이 저렴하며, 대규모 시
스템의 경우는 테이프/광디스
크 기반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적인 투자.

BIGGEST TO-BE 모델(시스템 구성도)



02

3

참고 시스템 (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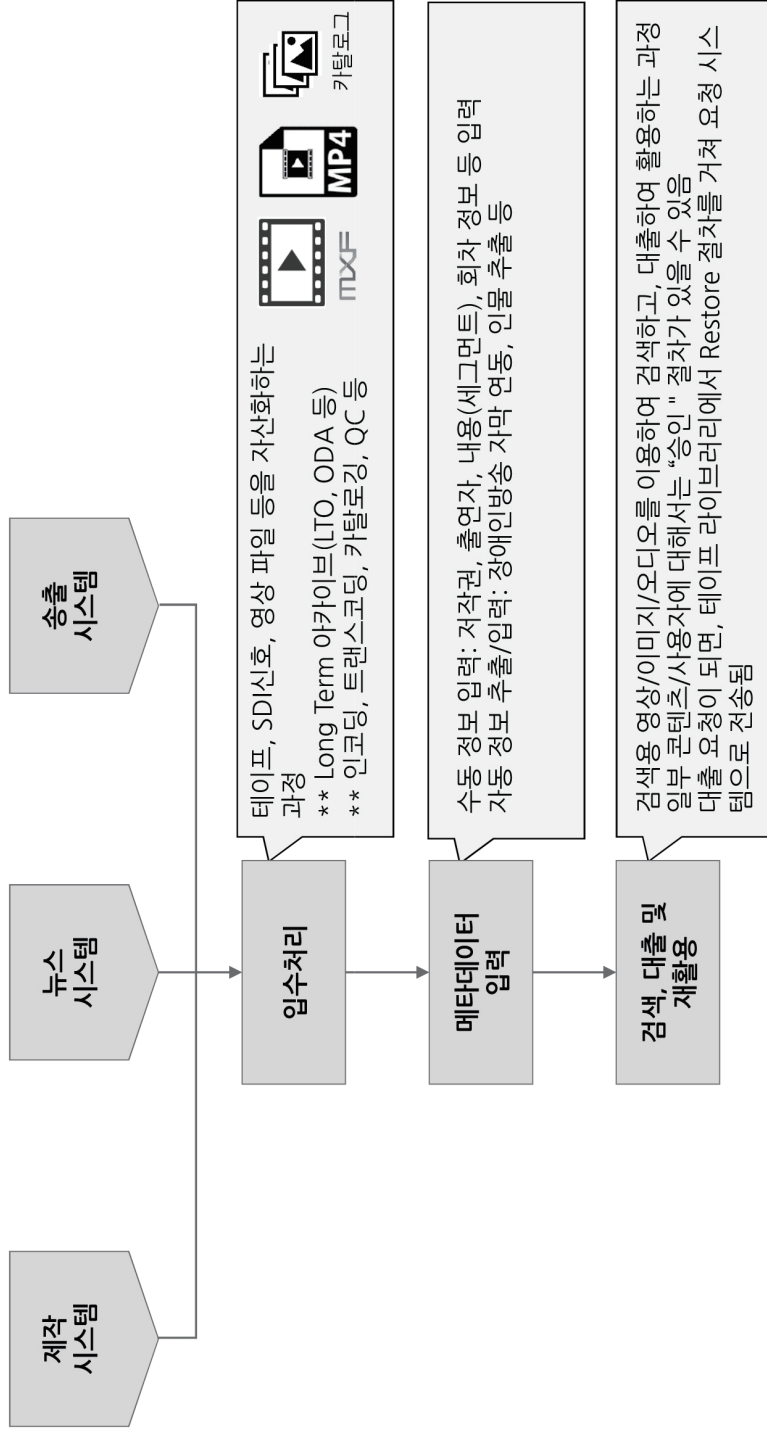


국내 주요 방송사 아카이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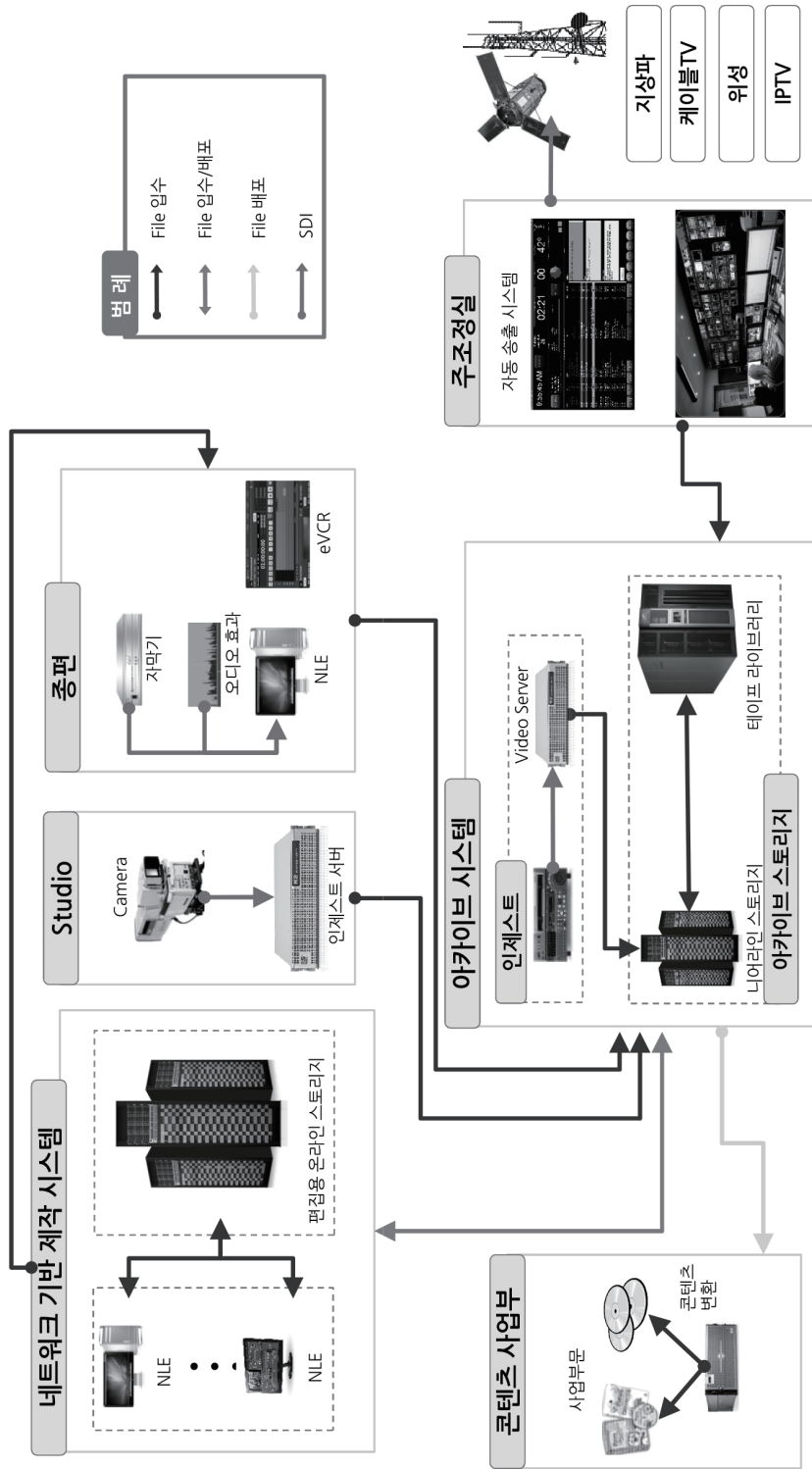
- KBS
 - KBS Digital Archive: 560,000 시간+
- MBC
 - DAMS(Deep Archive Management System): 340,000 시간 +
- SBS
 - DAS(Digital Archive System) : 110,000 시간+ (프로그램 기준)
- EBS
 - E-DAS(EBS Digital Archive System) : 320,000 시간+ (TV 콘텐츠 기준)
- 종편 채널
 -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모든 종편사들도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제작에 활용하고 있음

이미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상물 중심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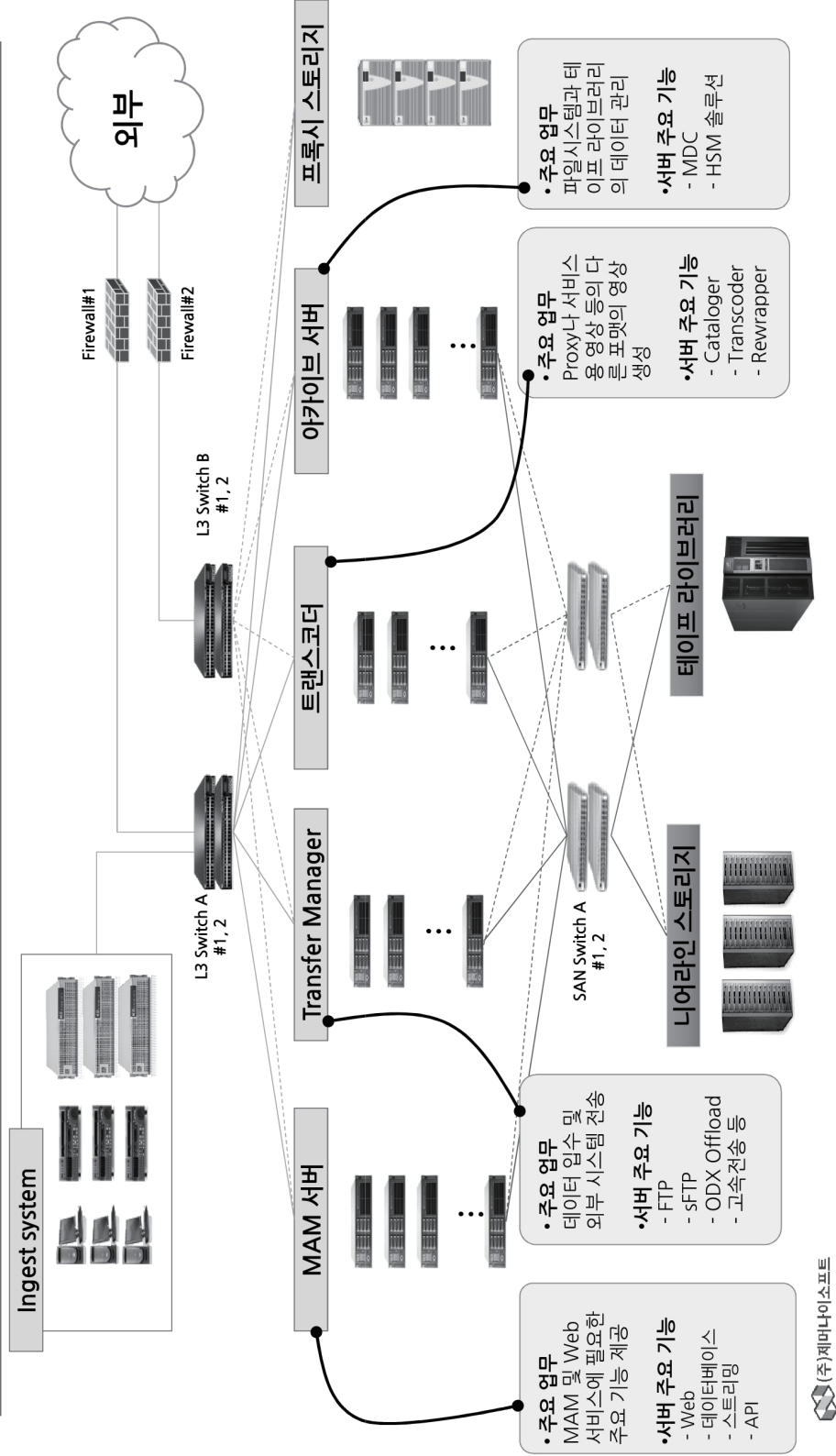
아카이브 입수 업무 흐름



방송사 아카이브 입수 업무 흐름(계속)



하드웨어 구성도(예시)





주요 특징

- 영상 포맷
 -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HD 포맷으로 XDCAM HD/MXF 사용
 - 압축 방식: MPEG2 Long GOP
- 영상 브라우징
 - 프록시(저해상도) 영상으로 영상 확인
 - 영상 검색은 Text 검색 엔진 사용
- 아카이브
 - 대규모 테이프 라이브러리(10PB에서 수십 PB)
 - HSM 솔루션은 80% 이상 Oracle(구 Frontporch)사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SGL이 일부 사용되며 MBC의 경우 자체 개발 솔루션 사용
 - 안정적인 데이터 보관을 위해 테이프 복제(Main-Backup 구조)
 - In-House 데이터센터형 아카이브
- 운영솔루션
 - 대부분 국산 MAM 솔루션을 기반으로 방송사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운용

구분	내용
HD 포맷	XDCAM HD/MXF
SD 포맷	IMX D10
프록시	h.264/AAC/mp4
주요 편집장비	Final Cut, GrassValley Edius, Avid Media Composer, Adobe Premiere 등
아카이브	LTO 4~8 테이프 라이브러리
HSM	Oracle(DIVArchive)
용량	10~수십 PB
운영	국산 커스터마이징 MAM -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방송사	비고
지상파 방송사	KBS, SBS, MBC, EBS, OBS	케이블 계열사도 아카이브 구축 완료
종편 채널	JTBC, 채널A, TV조선, MBN	
뉴스, 경제	YTN, 연합뉴스, 한경 WOW 등	
홈쇼핑 채널	CJ오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SK Stoa 등	디스크 아카이브로 구축
케이블/위성	CJ ENM, 아리랑TV, 불교방송, tbs 교통방송, pbc평화방송, CTS 등	pbc 평화방송 구축 예정(9월부터) 그 외 케이블들 중 규모가 있는 곳은 구축 완료
지역민방	KNN, TBC, JTV 등	비교적 소규모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그 외의 다수 소형 PP 들에서는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규모가 비교적 큰 방송사의 경우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데이터센터형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많은 소형 PP의 경우 계획이 없는 상황
- 지역 민방의 경우 대형 아카이브보다는 스토리지 또는 ODA 방식의 중/소규모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하여 활용 중

*** 위의 구축 현황은 일부 방송사에 대한 구축현황이며, 더 많은 아카이브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음

03

시스템 설계

2

1



테이퍼|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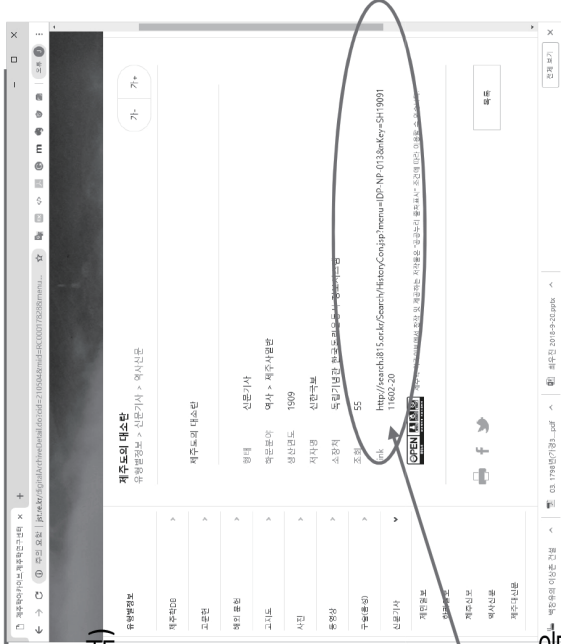
- 웹서버 중심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보여짐
- 오픈라인 서버 구축 여부는 불분명함 / 만약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오픈라인 서버 구축이 필요함
- VOD/Web: 세종텔레콤(구 신비로) IDC 망 내 혹은 가비아 대여
- 웹서버: 210.127.210.233(jst.re.kr)
- VOD서버: 210.127.210.234(Wowza 미디어 서버 사용)
- 저장 데이터: 무한 중심으로 약 40,000 이상 예상





현 시스템 분석(계속)

- 웹 기반으로 서버가 구축되어 있음
- 검색포털/검색엔진 연동("한라산 1부 - 한라산, 생명을 품다" 검색)
 - 구글: 게시판과 연동되어 있음
 - 네이버: 웹사이트 검색에 나옴
 - 다음: 웹문서 연동
- 고문헌
 - PDF로 변환되어 있음
 - 이미지 자료와 동일한 구조가 대부분으로 예상됨
 - 텍스트 데이터 추출 불가능
- 링크 데이터
 - 역사신문 등의 일부 데이터는 링크로만 존재함
 - 향후 해당 서비스의 링크 변경 시에는 데이터 손실 위험 있음
- 내용 검색
 - 내용 검색은 되지 않으나 [메타데이터]로 신문 기사 등의 경우 첫 번째 단락을 포함해뒤서 검색 가능
 - 통합 검색 기능은 제공되지 않음



콘텐츠는 제주 역사를 비롯하여, 신문 기사 등의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측면에서는 통합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임.

**** 외부인으로써, 아키비스트(Archivist) 화면 등은 확인하지 못함**



방향성과 원칙

오픈 시스템

1. 향후 어떤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불일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축
2. 어떤 업체, 어떤 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시스템
3. REST, SOAP 등의 API 기반으로 투명한 확장성
4. 표준 프로토콜/포맷을 이용하는 시스템

미래 지향적(Future Oriented)

1. 현재 나와있는 기술 외에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현재 주류 기술이 아니더라도 향후 주류 기술 변경 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독립성 / 완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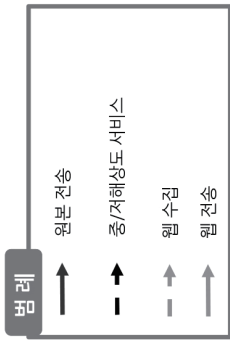
1. 외부 서비스와 내부 아카이브 시스템의 분리(각각 완결)
2. **제주학에 관한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시스템**
3. 사용자/사업자가 추가 개발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4. 제주학 검색을 위한 포털 및 검색 엔진과의 연동

제주도 아카이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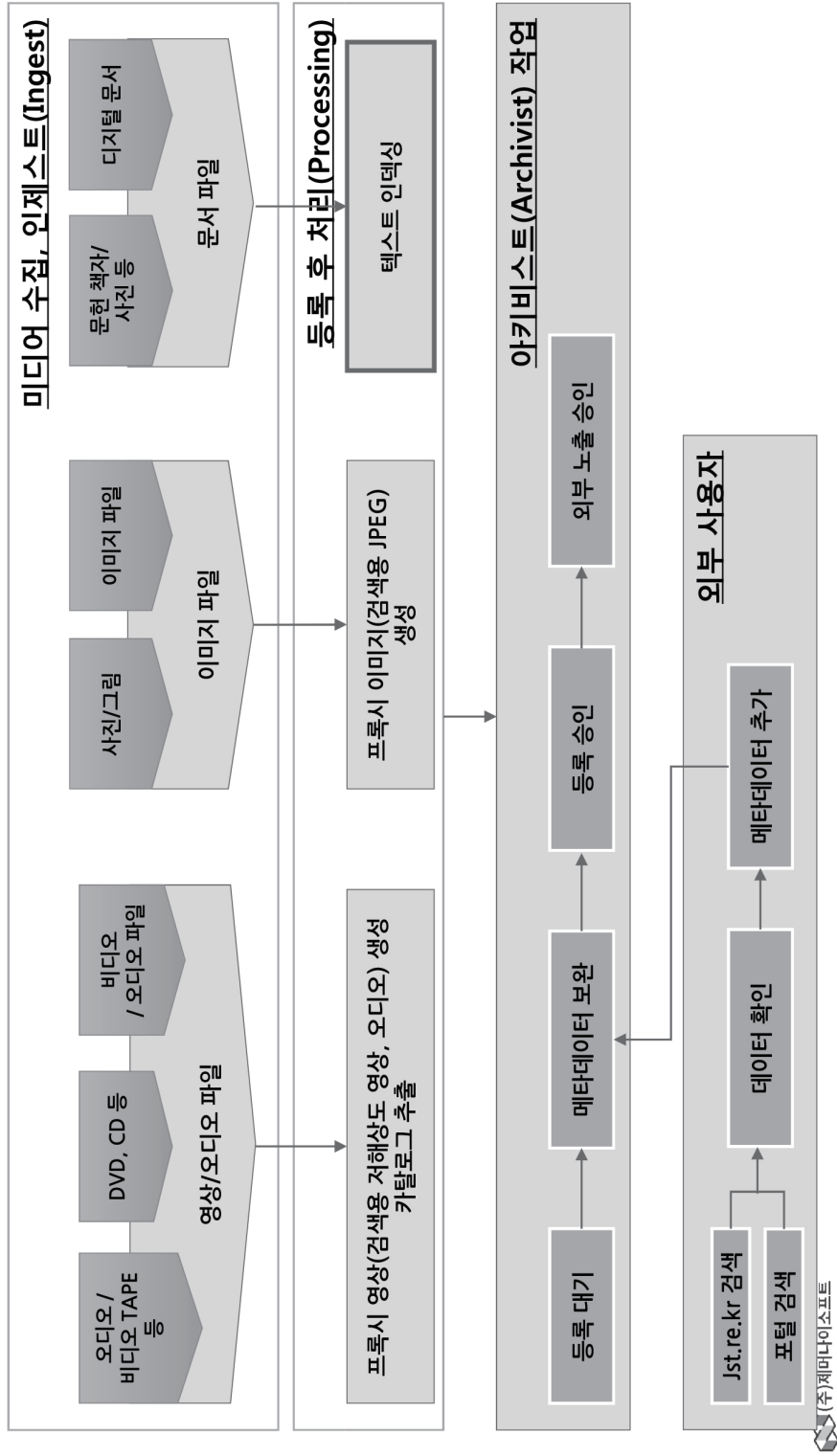
1. 제주도 방언 데이터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기반 제공
2. A.I 및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주학 아카이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과제 구현 필요

컴팩트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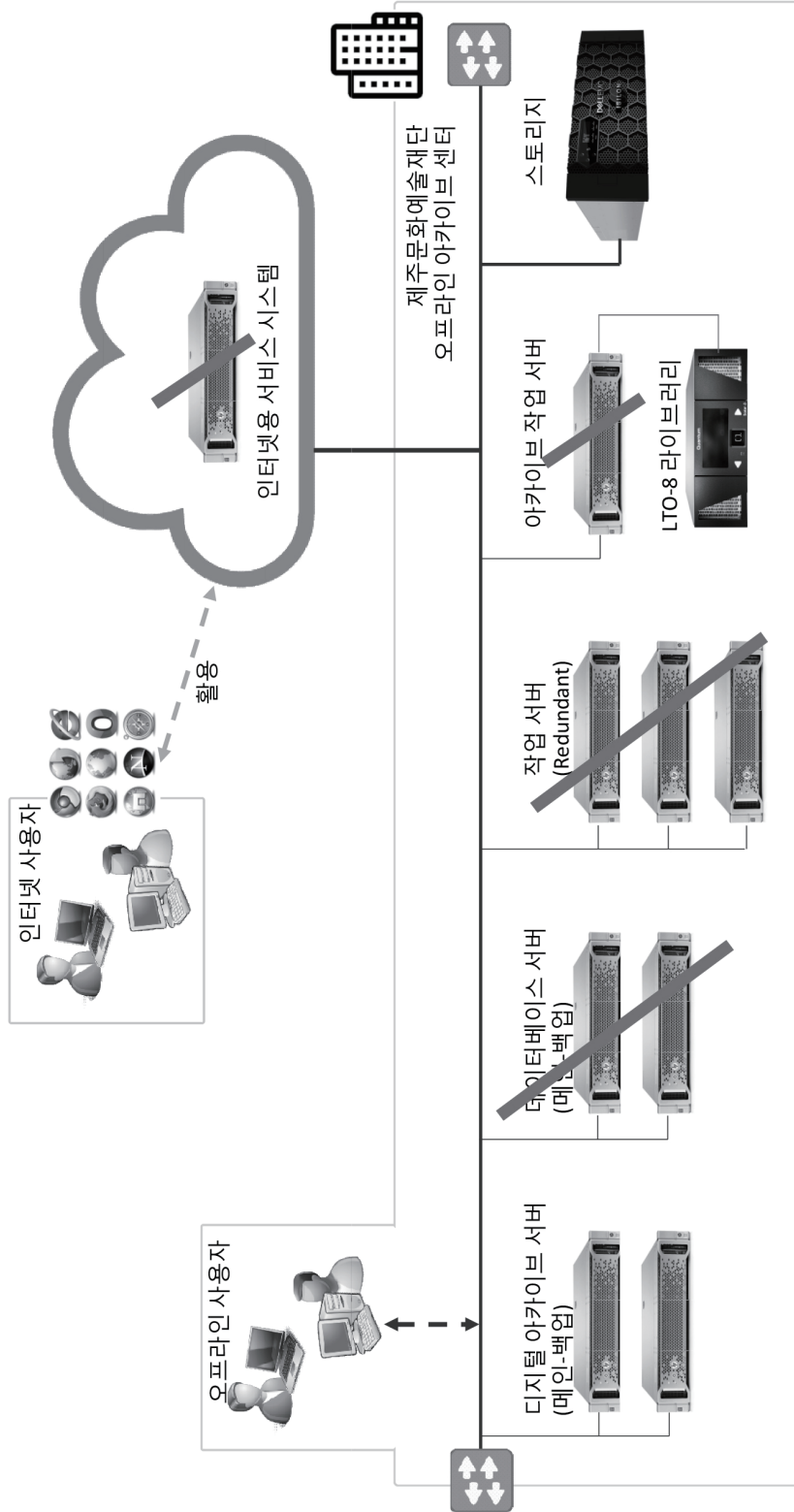
1. 하드웨어보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에 투자
2. 발전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컴팩트한 시스템으로 구축
3. 향후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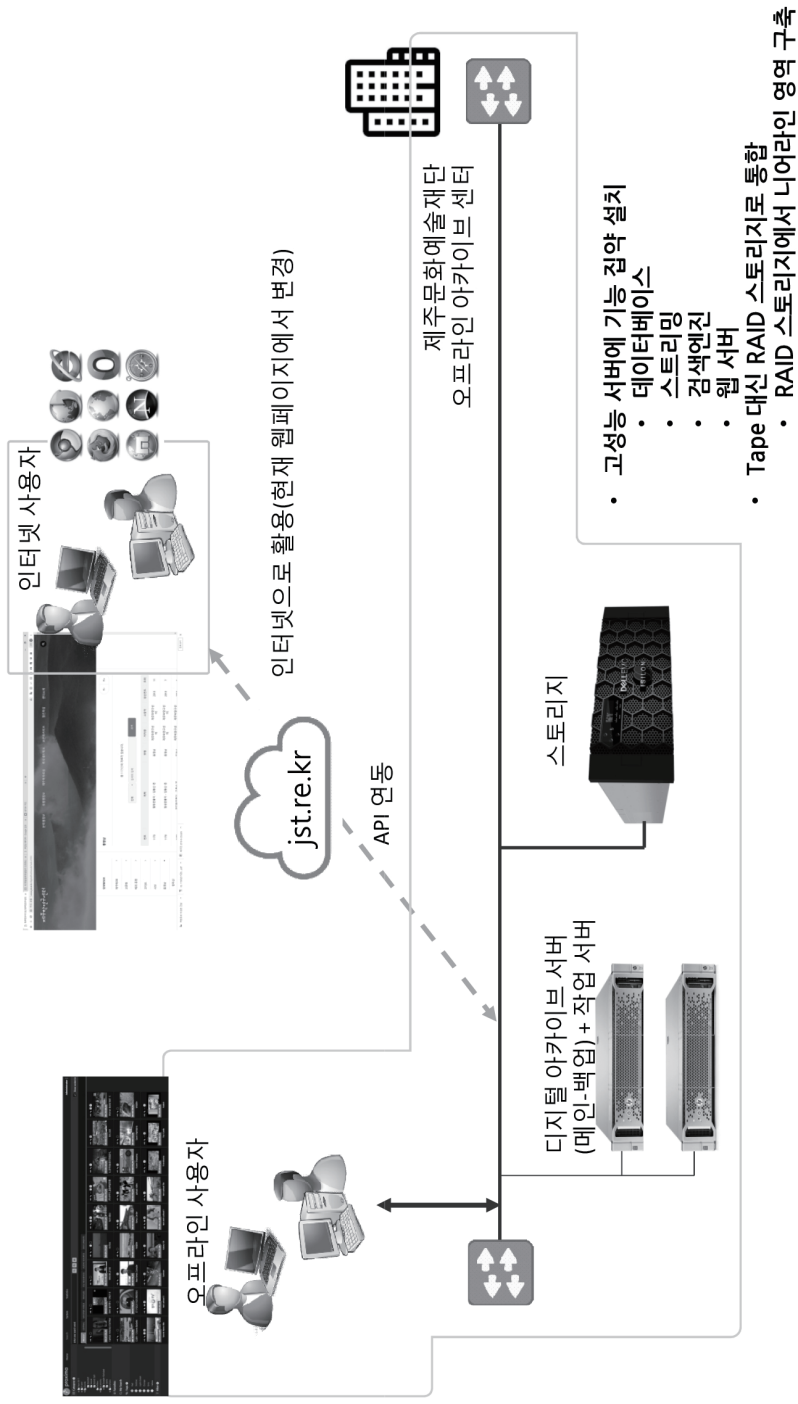
제주학 아카이브 데이터/메타데이터 흐름도



TO-BE 모델(시스템 구성도)



TO-BE 모델(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설계 내역

	기능	특징
서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 웹 서비스/ API 서비스 • VOD 스트리밍(h.264) • 검색엔진 • 트랜스코딩 • 카탈로깅 • 문서 분석(문헌, 문서 검색 기능) 	2대의 하드웨어에 압축 고성능 서버 2대로 5~6가지 기능 제공 서버 성능에 대한 최적화(Optimizing)이 중요함 이후 작업량이 늘어날 경우 작업 서버만 추가하도록 함
스토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 확장이 쉬운 Scale Up NAS • 메인 / 백업 스토리지 구조 	성능 확장보다 용량 확장에 주안점을 둔 Scale Up NAS 온라인과 백업 스토리지 이중화 필요

- 제주학연구소에서 제주도에 관련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보관하여야 함
 - 계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이 쉽지 않음
 - API 형태로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기반 확보 필요
- 내부 아카이브 시스템과 외부 서비스 서버(현재 웹서버)는 구분
-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아키비스트가 데이터를 정리/관리하고 데이터를 서비스하는데 주안점을 가져야 함
- 향후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함



주요 기능 구성

구분	기능	필수	비고
기본 기능	동적 메타데이터 구성	○	
	워크플로우 설정	○	
	텍스트 검색 엔진	○	메타데이터 등록
	부가 파일 등록 기능		번역 내용 등 등록 기능
	통합 검색 기능		모든 유형/분야 내 검색 기능 제공
영상 아카이브	다양한 원본 영상 지원	○	MXF, MOV, MP4, AVI 등
	프록시 영상 생성/카탈로그/썸네일 추출	○	h.264/AAC/mp4
	영상 메타데이터 추출	○	
	영상 플레이어/VOD 서비스	○	HTML5 비디오 플레이어
이미지 아카이브	다양한 원본 이미지 지원	○	TGA, BMP, SGI, GIF, JPG, PSD 등
	프록시 이미지 생성	○	JPG
	이미지 메타데이터(EXIF 등) 추출		
오디오 아카이브	다양한 오디오 파일 지원	○	
	프록시 오디오 생성	○	MP3
문서 아카이브	문서 내용 텍스트 추출	○	PDF
	문서 내용 검색 엔진 등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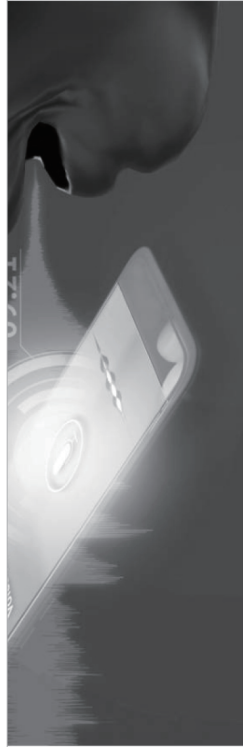
제주학아카이브의 발전의 발전방향

- 제주방언과 인공지능
 - 제주방언 사전 데이터 추가
 - 2018년 9월 27일 현재, 7159 단어 등록
 - <https://www.jeu.go.kr/culture/dialect/dictionary.htm>
 - 2017년 판,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데이터를 검색하기는 쉽지 않음
 - 제주방언 번역 서비스
- 제주학 데이터 포털 개념으로써의 제주학 아카이브
 - 제주도에 대한 문헌, 역사, 기사 아카이브 등에 대한 내용 검색에 따른 아카이브 지원
 - 온라인에서는 검색 포털 연동으로 접근성 향상
 - 오프라인 서비스
 - 원본/고해상도 이미지, 영상에 접근을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 제주학 아카이브 데이터 생태계 구축 필요
 - 현재는 게시판형 아카이브 시스템이며, 사용자가 확인하고 추가할 내용을 입력하고자 하여도 입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고문헌 등에 대한 학술적 발견, 메타데이터의 변경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러한 Feedback이 추가되는 구조로 데이터가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필요



연구과제 예시) 제주 방언 + A.I

Deep Learning/A.I 기술과 제주 방언에 대한 사전, 대화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제주 방언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Researchers are analyzing conversation data using AI to help doctors in various ways, including communicating with patients who speak with a strong dialect or detecting dementia. | ISTOCK

NATIONAL / SCIENCE & HEALTH | A MATTER OF HEALTH

Japanese researchers tap AI to parse regional dialects, work toward early dementia diagnosis

BY TOKOKO OTAKE
STAFF WRITER

People in Aomori Prefecture, especially in the western Tsugaru area, are known for their strong dialect, often leading outsiders to joke about needing a translator.

But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 issue is no laughing matter.

Misunderstanding patients could lead to incorrect medical decisions, and the longer it takes for doctors and nurses unfamiliar with the dialect to deal with patients, the longer the wait will be for others.

In an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Hirotsaki University in Aomori and Tohoku Electric Power Co. this month started analyzing the voice data of 6,700 phone calls, covering 900 hours of calls the utility's customer center has fielded from across the Tohoku region. They have also started collecting conversation data

- 제주학 연구소와 제주 내 대학교/대학원 등과 함께 정부 연구과제 등을 통한 AI 기술 접목이 필요
-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주방언 등 제주학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Ex)제주어 번역 서비스

Jeju in UNESCO Languages AtlasShare on Facebook Updated: Jun 11 2017

Jeju Sources More Submit comment

Original name	제주어
Name of the language	Jeju (en), Jeju (fr), Jeju (es)
Alternate names	Cheju, Ceycwu, Jējuo
Vitality	Critically endangered
Number of speakers	In 2010 : 5,000-10,000 (all above 70-75 years)
Location(s)	Jeju Isl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try or area	Republic of Korea
Coordinates	lat : 33.3671; long : 126.4974
Corresponding ISO 639-3 code(s)	jje



감사합니다.

MEMO

MEMO

